

사람중심의 실천을 기획하다



주 최		사회적 협동조합 굿임팩트
기 간		2019.07.17.
장 소		사랑의열매 회관 지하 1층 대강당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명 단	고형식, 최보람
	인 원	2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07.19
	시 간	10:00-18:00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중심의 실천을 기획하다

I. 사람중심의 실천 및 그 기획의 의미

관리주의가 중시되는 복지현장

평가제도, 위수탁제도, 자원개발,
공모사업, 매뉴얼, 실적중시, 감사,
근거기반실천, 성과평가통합사례관리,
커뮤니티케어 등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융합되고 창의적인 사회로 변화
인간중심, 관계, 공유, 기술적 진보,
상상력

사회복지사는 개인 및 공동체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심은 사람



긍정적인 변화의 가치를 확산할 의무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사람중심의 기획이 중요

II. 기획을 위한 보고서 작성의 이해 및 실제

1.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 선별
- 선별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분석
-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대안 제시
- 의사결정의 효율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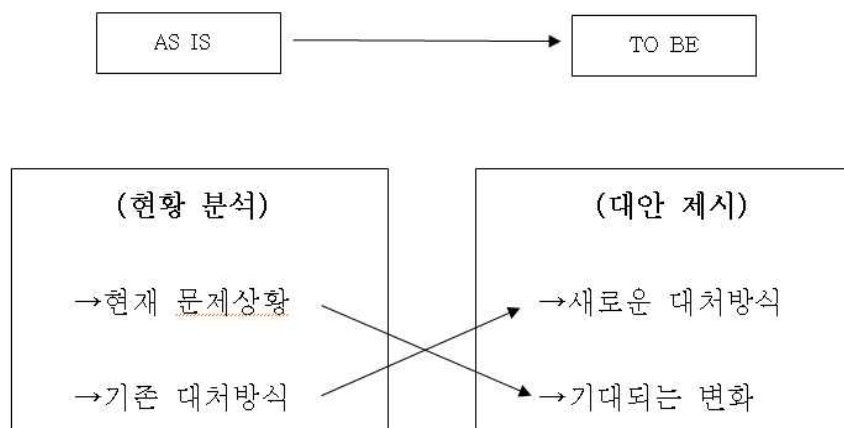
2. 보고서 작성의 공정(Procedure)

- 1단계 : 준비
- 2단계 : 논리구성
- 3단계 : 밑그림
- 4단계 : 문서작업
(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에 따라/항목이 없는 경우 논리모델 기반으로 작성)
- 5단계 : 가다듬기(마무리)

3. 좋은보고서의 원칙

- 통계자료
- 서베이 결과(실태조사, 욕구조사)
- 이해관계자의 언어
- 언론 보도내용
- 연구논문(전문가 의견)

4. 좋은보고서의 기본 구조



Ⅲ. 기획의 일반적 이해

1. 기획의 개념

1) 계획과 기획의 관계

- 계획 : 어떤일을 하기에 앞서 방법, 순서, 규모를 미리 생각하여 세운 내용
- 기획 :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기획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 → 계획

2) 기획의 개념

기획은 “통찰력, 계획적인 사고,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이며, 다양한 행동 노선 중에서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선호를 행사하는 것이다. ”

기획은 해야 할 일, 하는 방법, 시기, 하는 일의 필요성, 일을 책임질 사람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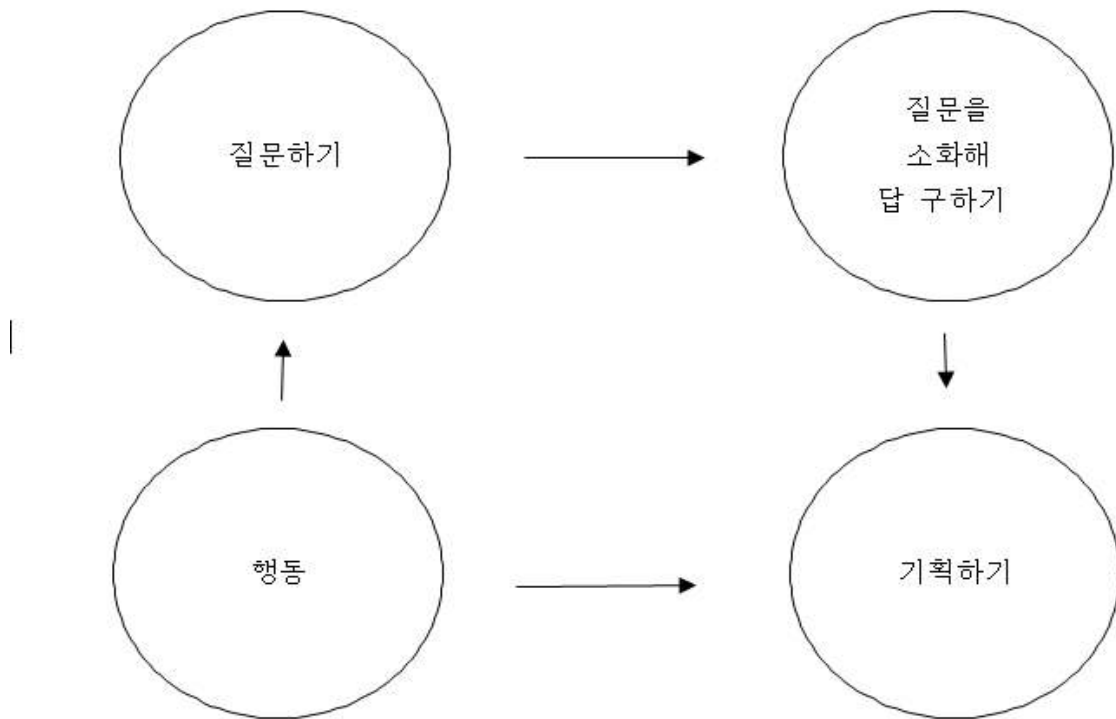
기획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함은 물론 과거의 시행착오를 시정하는 **조직화된 노력**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2. 기획의 속성

- 미래지향적이다.
- 계속되는 과정이다.
- 결정과정의 연속이다.
- 목표 지향적이다.
-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는 것이다.

3. 기획의 정보 사슬



4. 기획의 시작

1) 질문하기 5W1H

- 누가(WHO)
- 언제(WHEN)
- 어디서(WHERE)
- 무엇을(WHAT)
- 왜(WHY)
- 어떻게(HOW)

2) 질문하기 사례

- 요즘은 왜 우리지역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는가?
- 왜 빈곤문제는 해결이 안되는가?
-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다문화가족자녀들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
- 장애인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할까요?
- 우리 지역의 자살률은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IV. 로직모델의 이해와 적용

1. 로직모델의 개념



2. 로직모델의 구성요소

1) 문제상황

- 문제상황은 현재의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변화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개입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가로 하여금 개입이나 실천의 동기나 이유를 설명 해주는 영역
- 프로그램 기획자에게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이용르 명확하게 해주는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의 출발점
- 가급적 통계자료나 욕구조사 결과를 활용해 객관적인 상황 기술 필요
- 문제상황에서 간과될 수 있는 것 중에서 문제나 욕구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이는 추후 어떤 개입전략, 즉 어떤 활동을 결정해야 할 것 인 지와 연관

2) 투입

-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자원과 프로그램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
- 투입되는 자원의 유형 : 인적, 물적, 제도, 정책, 관계자원 등
- 투입은 보통 로직모델의 다른 구성요소인 활동과 연관성이 높음.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투입되는 자원이 달라지기 때문
- 자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일 수도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확보 해야 할 지원일 수도 있음.

3) 활동

-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실천하는 것
- 접근하는 사람에 따라 활동을 전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활동은 사회복지사나 기관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천 전략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제 상황이 해결되어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함.
-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천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됨.
- 활동의 구체적인 예로는 상담, 치료, 교육, 멘토링, 취업훈련, 자조모임, 캠프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실천가나 기획자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실천방법을 선택

4) 산출

- 산출은 프로그램의 활동으로 얻어진 직접적인 결과물로 프로그램이 의도된 대로 대상집단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공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크기를 말하는 것
- 산출은 사후적으로는 활동의 총량을 의미하는 결과측면의 의미가 있지만, 사전적으로는 기획자가 실천이나 개입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정도로 할 것이냐는 바로 대상집단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로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성과

- 성과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시 혹은 종료 후에 얻게 되는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표현을 바꾸면, 참여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면 참여자의 태도, 지식, 기술, 가치, 기능, 행동, 지위, 조건 수준의 변화를 언급하는 것임. 변화의 단위가 개인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 지역사회나 시스템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
- 성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기성과 중기성과 장기성으로 구분
- 단기성과는 주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기성과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며, 장기성과는 조건이나 지위의 변화를 의미

3. 로직모델의 사례

사례1.

지역사회내 저소득 방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야간 방과후 프로그램

situations	inputs	activities	outputs	outcomes
·저소득 방임 아동의 학습능력 저하 ·저소득 방임 아동의 자기효능감 저하 ·저소득 방임아동의 야간보호결여	·사회복지사1명 ·방과후지도사1명 ·자원봉사자5명 ·프로그램실25평 ·상담실2평 ·차량1대	·학습지도 ·문화체험 ·농활캠프 ·야간보호 ·아동상담 ·보호자상담	·주5회 2시간 ·월1회 4시간 ·년2회 2일 ·주5회 3시간 ·월2회 1시간 ·년2회 2시간	·학습수행능력 향상 ·방임아동자기 효능감향상 ·야간방임문제 감소

사례2.

발달장애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

situations	inputs	activities	outputs	outcomes
·발달장애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 가중 ·발달장애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 ·발달장애 청소년의 취업 어려움 ·발달장애 청소년의 취업에 필요한 기술 부족	·바리스타 강사 1명 ·직업능력개발 강사 1명 ·바리스타 교육장 ·바리스타 훈련장비 ·카페1개소 ·커피원두 등 소모품	·직업훈련교육 ·인턴십 ·직업능력개발 PG	·주2회 3시간(6개월) ·주2회 2시간(3개월) ·월2회 2시간(6개월)	·발달장애청소년의 자존감향상 ·발달장애청소년의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발달장애청소년의 취업성공 ·발달장애 부모의 양육부담 감소

V. 프로포절(제안서)의 기본 개념 이해

1. 제안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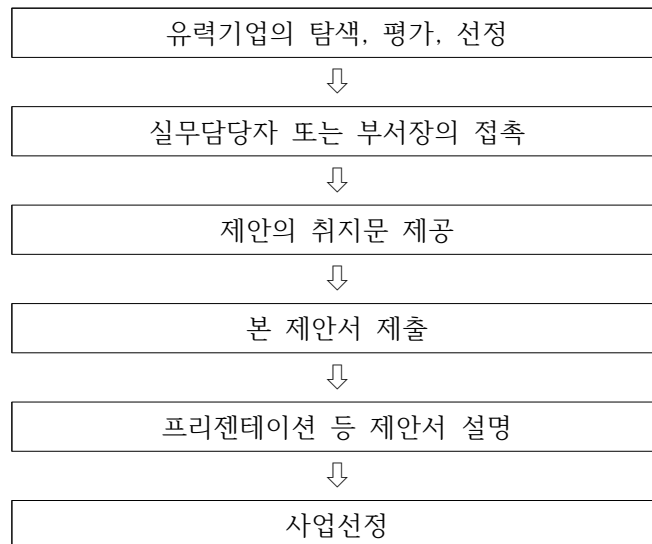
- 1) 기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파악하여 기금을 제공해주는 공급자간에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적합성과 시너지를 확인하고 그 협력방법과 파트너쉽을 결정하기 위해 기금 수요자가 기금 공급자에게 작성하여 제공하는 문서

- 2) 펀드레이징 : 가치의 교환을 촉진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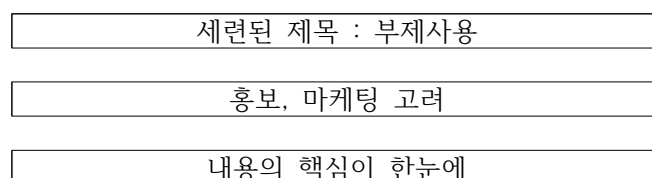
2. 제안서의 유형

- 1) 대상 : 정부, 재단, 기업, 개인
- 2) 형식 : 신청서, 편지형식, 자유제안형
- 3) 분량 : 사전접촉형, 요약형, 정식 제안형
- 4) 시점 : 조직시작, 신규사업 시작, 기존사업의 확대

3. 제안서의 접근법



4. 제안서의 성공요인



VI. 전문적인 프로포절(제안서)의 실제

1. 좋은 프로포절의 필수 조건

- 1) 적절한 대상을 선정해야 하고, 이들의 문제와 욕구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그 심각성은 객관적으로 잘 제시해야 한다.
- 2) 공급자가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클라이언트 삶의 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즉,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 3) 목표를 통해서 특히 “성과목표” 항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4)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야 하고 참여하는 동안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 5) 새로운 프로그램보다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으며, 제안할 프로그램이 기관이나 담당자의 경험적 기반을 근거로 해야 하면서 실무자의 성장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과거보다 더 도전적인 프로그램이 좋다.
- 6) 백화점식 개입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입방법에 집중해야 한다.
→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이나 욕구충족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입방법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 7) 반드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사업을 수행과정을 통해 그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항목에서 구체적인 성과평가 방법(척도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프로그램 참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자신감이나 책임성과 관련 있음.

2. 프로포절의 구성 요소

- 1) 사업 명칭 : 사업의 모든 걸 함축 할 수 있으면서, 상징성까지 갖출 것
- 2) 사업 개요 : 어떤문제상황이나 욕구로부터 출발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변화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
- 3) 사업의 필요성 :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가진 집단의 욕구를 객관화시켜 기술
- 4) 사업의 대상 : 해결해야 할 문제나 욕구를 가진 집단 중에서 실제 개입이 가능한 집단
- 5) 사업의 목적, 목표 :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어야 하고, 목적과 목표는 위계구조를 가짐.
- 6) 사업 내용 : 사업의 목적, 목표의 하위체계로 목적, 목표와 관련 있는 사업 내용만으로 구성
- 7) 사업 예산 :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돈으로 전환(환산)한 것으로 산출 근거가 필요함.

VII. 교육사진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



주 최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
기 간		2019.08.23.~08.25.
장 소		어썸타운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명 단	최보람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08.23.~08.25
	시 간	24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

I.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 개요

스페셜올림픽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은 인지 및 기본적인 운동기능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페셜올림픽 공식 경기종목에 참여할 수 없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안된 운동프로그램이다. 스페셜올림픽의 경기는 발달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규칙과 방법을 단순화하거나 변형시킨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운동기술, 체력, 인지적 측면에서 낮은 발달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스페셜올림픽 경기종목 참여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신체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MATP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감각운동기술과 지각운동기술 그리고 기본운동기술로 구성된 운동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쟁보다는 기본 움직임 향상을 통한 신체활동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의 목적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의 목적은 스페셜올림픽 경기종목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운동기능 향상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 이에 따른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Special Olympics, 2005).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의 목표

- 스페셜올림픽 종목과 관련한 운동 기능을 발달시켜 대회의 참가를 가능하게 한다.
-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개인별 맞춤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모든 MATP 선수들은 다른 선수와의 경쟁이 아닌 자신의 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MATP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선수로서 스페셜올림픽에 참여했을 때 가장 적절한 수준의 경험과 성취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된다.
- 모든 MATP 코치는 선수들의 운동 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만드시 스페셜올림픽 MATP 코치 자격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한다

출처 : Special Olympics Motor Activities Training Program Coaching Guide(2005)

2.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의 방향



3. MATP코칭의 원칙

1) 스페셜올림픽 종목과의 연계

- ① MATP의 7가지 운동 기술은 스포츠 종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참가자에게 ‘던지기 기술’을 지도할 때, 단순히 공 쥐기와 공 놓기 동작에 대한 경험과 학습으로 목표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던지기 기술’은 소프트볼이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 종목과의 연계까지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의 운동기술 수행 방식은 추후 참가자가 스포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 ② 각 운동기술은 구체적 행동 용어로 상세히 기술하여 교육계획 혹은 가정훈련 계획의 단기 목표로서 활용한다. 또한 각 운동 기술은 과제분석을 통해 세분화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운동기술	해당스페셜올림픽 종목
신체동작 움직임	체조
손 조작	육상,소프트볼
치기	소프트볼,볼링,배구,테니스,배드민턴
발차기	축구
수동 휠체어	육상경기
전동 휠체어	육상경기
수영	수중 스포츠

2) 비경쟁 프로그램

- ① MATP는 비경쟁 프로그램이다. 경쟁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없으며, 순위에 따른 시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 ②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③ 안전하고 성공적인 참여를 위해 변형된 도구를 사용하거나 신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④ 규칙을 수정한 계주, 볼링 토너먼트, 팀 스포츠 등과 같은 경쟁경기를 구성할 수 있으나 승패보다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강조해야 한다.

3) 연령 적합성

- ① 정신연령이나 현재 기술능력이 아닌 실제 연령을 기반으로 기술을 가르친다.
 -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활동을 선택한다(예: 어린이에게 적합한 게임 활동 보다는 볼링이나 골프와 같이 어른들이 즐길만한 평생 레저스포츠를 선택).
 - 참가자의 능력에 따라 활동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가능하다면 참가자의 실제 연령에 적합한 장비(용품)를 준비한다(성인에게 봉제인형이나 영유아 장난감을 주지 않는다).
 - 추정된 정신 연령이 아닌 생활 연령에 준하여 참가자와 소통한다(예: 장애를 가진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할 때, 비장애인 성인이나 청소년과 동등하게 대한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아기를 대하듯 말하지 않는다).
- ② 실제 연령에 적합한 운동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참가자의 품위를 지키고, 또래 그룹이나 지역사회에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현재 수행 수준에 적합한 활동

- ① 현재와 성인이 되었을 때 빈번하게 사용될 운동기술을 가르친다.
- ② 실용적인 운동 기술은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다.
 - 16살 참가자에게 쿡주머니 패스를 가르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 학생들에게 쿡주머니를 밀고 전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그 학생이 소프트볼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참가자의 현재나 미래에 참여가 가능한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선택하여 그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프로그램 마쳤을 때 볼링이나 수영에 참여해야 한다면, 볼링이나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참가자가 농구와 보체를 즐기는 생활공동체(group home)에 소속될 예정이라면, (적응과 함께) 농구와 보체를 가르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장 실용적인 활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

- 선수가 사는 곳과 참여 가능한 여가활동을 파악한다.
- 부모나 생활보조인에게 가족과 참가자의 관심 활동에 대하여 물어본다.
- 가능하다면, 참가자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다.

5)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참가자의 연령에 적절하고, 실용적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학습한 기술을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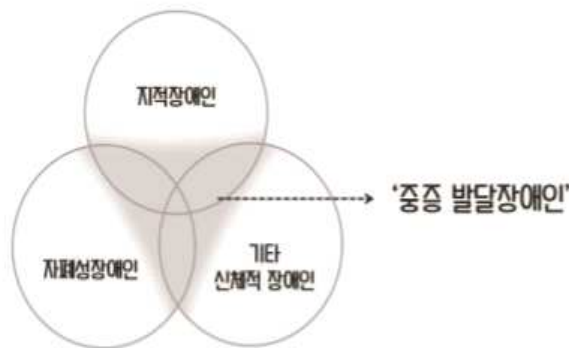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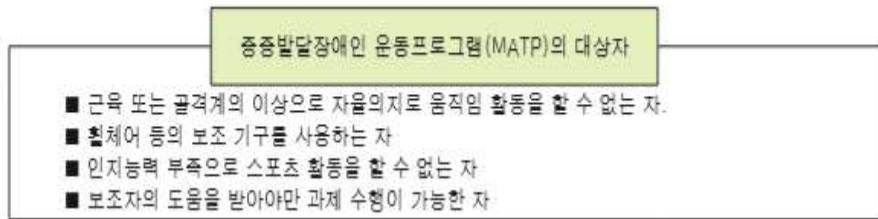
6) 효과적인 보조법: 큐(Cues) ‘큐(Cues)’란 선수가 취해야 할 동작을 안내하는 알리는 신호(요청, 짜인, 표시)를 의미한다. 지도자는 언어적, 시각적, 촉각적 자극을 사용하여 참가자에게 큐를 알린다. 이와 같은 큐는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큐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하며, 각각의 활동시간 내내 사용한다. 프로그램 중 다음과 같은 큐가 사용될 수 있다.

큐의 종류	설명
언어적 큐 〈언어적 보조〉	- 언어적 큐는 활동 시범을 보이거나 선수가 운동기술을 연습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언어적 큐는 움직임을 강조하는 단어나 문장이다. - 언어적 큐는 "팔을 들어 올리세요.", "라켓을 더 길게 잡으세요."와 같이 지도자가 선수가 수행하기 바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시각적 큐 〈시각적 보조〉	- 시각적 큐는 동작이나 운동기술을 시범을 보일 때 사용된다. - 시각적 큐는 참가자가 스스로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거나 운동 기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참가자가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각적 큐와 동시에 전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2명의 지도자 혹은 1명의 지도자와 1명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한다. - 시각적 큐는 참가자 옆에서 운동기술을 수행하거나,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촉각적 큐 〈신체적 보조〉	촉각적 큐(신체적 접촉)는 동작을 처음 시작하거나 올바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할 때 사용된다. 신체적 접촉의 예는 걷기 위해 다리를 움직여야 할 때, 참가자의 무릎 뒤쪽(오금)을 터치해 주는 것이 있다.

출처 : Special Olympics Motor Activities Training Program Coaching Guide(2005)

II.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의 대상

스페셜올림픽 MAPT는 운동기술이나 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스페셜올림픽 종목에 참여할 수 없는 중 증발달장애인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지체장애를 포함한 중증발달장애인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에 적합 한 스포츠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Special Olympics, 2005).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의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증발달장애인의 정의

1)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김수영, 진영은, 2015; 김인애, 2016)공통적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국내 중증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률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제2항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정의) 제1항	·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이하 생략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2)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는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2. MATP 대상자의 특성 및 지도 시 유의사항

1) 지적장애인

① 특성

■ **심동적 특성** : 지적장애인은 심동적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차이를 보이는 데 특히, 운동 기능의 발달이 지체 된다. 이는 생리적 혹은 운동제어의 결여보다는 부족한 주의력 및 이해력과 관련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지적장애가 심할수록 주요 발달 지표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최승권 등, 2015). 운동 능력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력, 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스피드, 유연성, 반응시간 측정에서 비장애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장애인 중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체력 및 운동능력, 유연성, 평형성 등에서 좀 더 나은 능력을 나타냄으로 성별의 차이에 따라 지원 서비스의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장애인과 같은 연령대의 수행 수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유산소 능력과 신체 조성, 유연성, 복근력,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 신체활동 참가에 필요한 상체 근력 및 지구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과체중을 보이며 비례에 맞지 않는 신체로 인해 균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Winnick, 2014). 그로 인해 지적장애가 종종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므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인지적 특성** :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비장애인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인지행동인데, 장애정도에 따라 인지 수준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적장애인들이 주의력 결핍과 기억력 결함을 가지고 있다(특수체육론, 2015). 단기기억에는 결함을 보이지만 장기기억에는 결함이 덜하다. 단기기억에 특히 결함을 보이는 이유는 적절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단기기억에 대한 결함은 이미지 훈련을 통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Borkowski &Cavanaugh, 1979), 주의력 결핍에 대한 문제 또한 이들을 지도할 때에 오랜시간 학습하는 것보다 단시간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결해야한다(김의수, 2003).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로는 정보를 일반화하는 능력 제한, 짧은 주의집중 시간, 추상적 개념의 이해 곤란 등이 있다(Winnick, 2014). 관찰이나 모방을 통하여 배우는 모방학습이나 우발학습의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지행동에 있어 동기가 높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동기유발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무동기 또는 누적된 실패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도 빈번하여 학습의 속도가 느리다(최승권 등, 2015).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더 효과적으로 학습해야하며, 지적장애의 기억특성을 파악하여 시연이나 새로운 정보를 이전의 관련 정보와 조직화하는 방법을 통하여 초인지 전력이나 집행통제 전략의 방법을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사회·정서적 특성 : 마지막으로 사회·정서적 측면에서는 비장애인과 비슷한 사회적 행동과 감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정서적 상황에 대해 자주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즉, 이들이 직면 하게 되는 일상 생활 속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최승권 등, 2015). 또한,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자신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빈약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이소현, 박은혜, 2011).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과 감정 반응을 결정하도록 돕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포함해야 한다(Winnick, 2014).

② 지도 시 유의사항

지적장애인이 운동할 때 많은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수행능력을 파악 하는 것이다. 다른 장애영역의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계획과 수준을 구성하기 전에 참가자들의 현재 수행능력을 기본운동기술과 건강 체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활동 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참가자의 의학적 정보, 사회적 능력, 신변처리 및 독립생활 능력, 기초학습능력 등을 숙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참가자들의 학령기 교육적 정보, 의료 기록, 상담 기록, 부모 및 보호자와의 상담 등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활동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승권 등, 2015). 대상자를 파악한 후, 신체 활동을 지도 할 때는 활동을 최대한 단순화 시키고 다감각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시범을 보이며 활동을 지도하며. 다양한 기구, 다양한 환경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분리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한다(김의수, 2003).

2) 자폐성장장애인

① 특성

■ **심동적 특성** : 자폐성장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는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체력 및 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는 운동발달 및 운동기술이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종종 운동기술의 지체와 서투른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최승권 등, 2015). 이들 대부분의 경우 감각 자극에 대한 과잉반응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 과소반응을 보일 수 있다(Feinstein, 2010). 운동기능의 경우 특이한 자세나 얼굴, 머리, 몸통, 팔다리 등의 비전형적인 움직임, 독특한 걸음걸이 등이 운동기능 장애의 특성으로 나타난다(Leary & Hill, 1996).

또한, 자폐성장장애인에게 운동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검사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자폐성장장애인의 체력과 운동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운동기술의 지체가 보이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운동기능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과 개별 자폐성장장애인에게 적합한 운동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최승권 등, 2015).

■ **인지적 특성** : 전반적으로 자폐성장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손상, 반복적이고 상동적이며 제한된 행동 등 다양한 증상과 수준을 보이며 증상이나 기능 수준에서 우수한 수준에서부터 낮은 수준까지 같은 수준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개개인의 독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폐성장장애인 중에서도 지적장애를 함께 보이는 이는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서 학업이나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더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인다(최승권 등, 2015). 수행 수준의 문제는 숙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에 특정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자극과다선택, 충동성, 과잉행동 및 상동행동 등의 특성들이 자폐성 장애의 성취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Ozonoff et al., 2005). 또한, 특정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데, 첫째로 강도나 초점에서 비정상적인 한 가지 이상의 상동적이고 제한적인 관심에 집착한다. 예를들어, 운동선수나 영화배우, 가수 등 같은 특정 주제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는 특정한 비기능적인 일상활동이나 의식에 고집스럽게 매달린다. 따라서 동일성을 고집하며 사소한 환경변화에도 괴로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교할 때 매일 일정한 길로 가기를 고집하거나 가구배치 혹은 계획된 일정을 바꾸는 것과 같이 환경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지도 시 내용이나 장소의 환경이 일관적이어야 한다(이소현, 박은혜, 2011).

■ **사회·정서적 특성** :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일탈적 결함은 자폐성장장애의 핵심적인 결함으로 수용되고 있으며(이소현, 1999) 이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형성의 발달에 지체를 보인다. 자폐성장장애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행동에 결함을 보는데, 첫째, 비구어적 행동의 사용에 있어서의 손상을 보여 눈 맞

춤이나 응시행동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고 둘째로, 발달수준에 적절한 또래 관계의 결여가 보인다. 그래서 집단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게임의 협동적인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한다. 셋째로 자폐성장장애인은 즐거움, 관심 또는 성취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 칭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폐성장장애인은 사회적 또는 정서적 상호성의 결여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거나 의식하지 않는다(APA, 2000). 이러한 결함은 모방, 정서적 공유, 공동관심 등의 결함을 초래하면서 결국은 이들의 사회·정서적 또는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이소현, 박은혜, 2011). 이렇게 많은 자폐성장장애인들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응시행동, 도움청하기, 순서 지키기,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 등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성지도가 필요하다(한홍석, 2006; 박계신, 2003; Scott, Clark & Brady, 2000). 또한, 자폐성장장애인은 이상한 정서반응이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강한데, 주된 행동특성 중의 하나는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상동행동이다. 주로 손 흔들기나 몸 흔들기, 눈앞에서 물건을 빙빙 돌리거나 하는 행동으로, 자기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기도 한다. 매일하는 일과들이 같은 순서, 방법, 같은 대상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뀌게 되면 문제행동을 나타내곤 한다(김원경 등, 2010). 이러한 문제행동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폐성장장애인의 행동 및 생활과 환경을 통해 자료를 얻은 후 적용하여 지도한다.

② 지도 시 유의사항

대부분의 비장애인은 자연적인 교수 환경에서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과 학습을 성취하게 되는데 자폐성장장애를 지닌 이들은 사회적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결함이라는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적인 교수 환경만으로는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기 어렵다. 이후, 단일 목표행동을 습득시키기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일탈적 발달 현상을 보이는 특성으로 인하여 단순한 발달주의적 접근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해서는 분리된 개별 행동만을 학습시키기보다는 장애의 주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 전개 순서를 일관적으로하고, 일정한 활동으로 지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소현, 1999).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을 조직화하여 도입, 전개, 활동, 평가의 구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활동을 지도하고 체육관 환경의 설정과 도구, 용품의 배치 및 활용을 항상 루틴화 한다. 주특성인 사회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으로 또래와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사회생활 경험하게 하며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도 유발한다(최승권 등, 2015). 하지만, 활동을 참여하기 싫어하는 경우나 과잉행동을 보이는 경우 경쟁 스포츠를 강요하지 않고, 이완 및 비경쟁 활동을 제공한다(김의수, 2003).

3) 뇌병변장애인

① 특성

■ **심동적 특성** 뇌병변장애인은 뇌에 손상을 입음으로 인해 신체 여러 부위의 마비와 자세 및 운동능력 장애를 가져오는 신경장애이며 그로인해 증상이 매우 다양하며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 근육이 뻣뻣하거나 움직임이 둔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관절을 굽히고 펴기가 어려워 활동 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적절한 관절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둘째로 불수의운동성의 특징을 보여 갑작스럽고 불수의적인 움직임의 결과로 몸이 뒤틀리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의도적으로 움직이려 할 때 신체의 균형과 안정감이 깨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의 주요 부분을 고정시켜서 움직임이 있을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뇌병변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평형성과 근육의 협응을 담당하는 소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운동실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근육이 저긴장성을 보이며 보행을 할 때 팔, 다리의 움직임에 필요한 협응력의 부족으로 인해 보행이 넓고 안정적이지 못하다(Bowe, 2000). 또한 뇌병변장애인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한 가지만 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유형의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중증 혹은 중복장애인이 이런 경우이다. 뇌병변장애인의 운동 시에는 장애가 심할수록 보행에 대한 문제나 활동 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숙지하여 사전에 안전하게 넘어지는 기술을 가르치고 머리에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활동하는 것이 좋다(Kasser & Lytle, 2005).

■ **인지적 특성** : 대부분의 뇌병변장애인은 지능이 낮은 범위에 집중되어 있는데 뇌병변장애인 중 1/4은 지능지수가 90~110 이상, 70~89, 1/2은 50~69 이하이다. 이렇게 지능이 낮은 이유는 뇌병변장애인이 의사소통과 신체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지능검사를 제대로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Cruickshank, 1976).

뇌병변장애인의 주의력 또한 결핍을 보이는 데, 주의력이 짧아 환경 내의 특정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자극이나 관계없는 자극에 무선택적으로 반응을 한다. 흔히 수업을 할 때 교사의 지시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주위의 잡음, 색채 등과 같은 불필요한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그 예이다(김의수, 2003). 이와 동시에 뇌병변장애인들은 언어장애와 정신지능 발육장애, 시각장애 및 경련·발작, 청각장애, 감각장애 등으로 인해 학습능력의 감퇴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Winnick, 2005). 이렇게 다양한 수준에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능력에 대해서 지도자는 대상자에 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필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과보호하거나 다른 대상자가 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을 수정 없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이 감소 될 수 있다.

■ **사회·정서적 특성** : 뇌병변장애인의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의 장애는 사회·정서적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달 초기에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장애로 인한 진단과 치료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 한다는 것

은 정서적인 안정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후에도 지속되는 진료와 치료들,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시설 등의 생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서적인 행동문제를 나타 낼 가능성이 있다(김원경 등, 2010). 그러므로 뇌병변장애인들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한 감정기복과 동기부족, 낮은 자존감, 자기중심적사고, 고집, 우울증 등으로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어렵다(최승권 등 2015). 이로 인해 자기 자신감이 낮은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수준에 적합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운동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동기유발에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자기개념, 즉 정서적 안녕에 필수적인 자아 유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다.

② 지도 시 유의사항

뇌병변장애인은 시각, 청각, 간질, 언어 장애등을 수반 장애로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뇌병변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서는 기타 수반장애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대상자의 운동 수행 성취와 발전에 있어서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이소현, 박은혜 2011). 또한, 지도자는 뇌병변장애인의 근육 마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체육 프로그램의 운동강도, 빈도, 시간, 유형을 상황에 맞게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최승권 등, 2015). 즉, 대상자의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개별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야 한다. 반면, 지도자는 뇌병변장애인들이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신체적 특성을 숙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휠체어와 관련된 안전 수칙들을 꼭 숙지하여 지도하고, 또한 몸이 지나치게 기울어지거나 신전되는 상태를 피하여야 한다. 또한, 물체를 들거나 옮길 때 몸을 비틀지 않도록 지도하며, 물체를 들고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에는 몸 전체를 돌려 척추나 허리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김의수, 2003).

Ⅲ. 국내 외 MATP 활동 내용

1. 보스니아

보스니아에서는 OAZA라는 브랜드와 스페셜올림픽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주관하여 매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게임을 개최한다. 이 대회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수도인 사라예보 내의 여러 지역에서 열렸으며 참여 국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와 스웨덴에서 온 팀들이 수영, 육상, 볼링, 농구, 탁구, 축구, 볼링과 MATP 프로그램의 종목에서 경쟁하게 된다. 이 대회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술과 능력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지적장애 스포츠클럽에서의 장애인과 일반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통합하는 스포츠의 장이다.

공 담기 	장애물 통과하기 
선수들은 접시콘 위에 올려놓아진 공들을 콘 앞에 있는 조그마한 바구니에 남김없이 모두 짚어 넣는다.	선수는 바닥에 놓여진 사다리 장애물의 빈 공간을 만 밟아서 통과한 뒤 상자 장애물을 차례로 밟으며 장애물을 통과한다.
미니 농구 	링 걸기 
선수는 탁자 모서리의 접시콘 위에 올려진 4개의 공을 모서리 중간, 중간에 있는 작은 농구 골대에 모두 짚어 넣는다.	선수는 탁자에 놓여진 4개의 핀에 각각 하나씩 링을 걸어 놓는다.

2. 플로리다

플로리다에서는 헤르몬산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신체장애 및 행동 제한으로 인해 전통적인 스페셜 올림픽팀 및 개인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중증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를 위해 다양한 MATP 활동을 진행하였다. 경쟁보다 교육과 참여에 강조점을 둔 이 활동은 손재주, 걷어차기,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육상 등 운동 선수의 기본운동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들이다. 또한 단기 목표, 과제분석활동, 평가 및 운동 활동 지침을 개별하기 위한 교육, 코칭을 활용하여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능력 수준에 맞는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에서 계속해서 교육과 참여가 이루어진다.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체육교사가 게임수정을 통해 체조 및 육상 경기등의 정규 체육수업에 통합하도록 도울 수 있다.

매달린 공 치기	매달린 공 치기
	
선수는 끈으로 공중에 매달린 공을 배트를 이용하여 치는 연습을 실시한다.	선수는 기구에 매달린 공을 발로 치는 연습을 실시한다.

3.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올림픽형태의 다양한 스포츠 행사 즉, 스포츠 훈련 및 운동 경기를 연중 내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신체 건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를 갖게 하고, 그들의 운동기술을 공유하는 일에 참여시킨다. 이번 벨기에에서 열린 2016 국제 스페셜 올림픽 게임은 어떤 수준에 있는 선수라도 모든 선수에게 신체활동 참여를 갖게 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활동의 종류는 크게 리듬체조, 육상, 농구, 배드민턴 등 15개 종목이 포함된 스포츠, 적응 신체활동, 스포츠게임, 그리고 MATP로 나누어져 있다. 국제 스페셜올림픽 게임에서의 MATP는 스포츠 또는 적응신체활동, 스포츠 게임에 참여할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친밀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활동이 구성되었으며, 대회 4일차에 시행되었다. 활동에 대한 선수들의 적응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여 에릭 바우웬스라는 MATP 매니저와 세바스티앙이라는 MATP 보조관리자, 제랄딘 그레고리라는 스포츠 게임 보조 관리자가 경기 요원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각 팀은 동일한 수의 선수를 포함하여 나누어지며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킥 톨링  선수는 일렬로 세워진 편과 15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 위치한 곳에서 축구공을 발로차서 편을 맞추어 쓰러트린다. 3번의 기회를 가져서 쓰러트린 편외 개수를 합산한다.	공 들고 장애물 통과하여 편 쓰러트리기  선수는 공을 들고 유니바를 넘은 후에 후프와 편과 5m 떨어진 곳에서 공을 굴리거나 던져서 편을 쓰러트린다.
공 던져 넘기기  선수는 3개의 공을 하나의 정해진 높이의 끈 위로 던져 넘긴다. 3번을 시도하여 성공횟수를 합산한다. 선수에 따라서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서 할 경우 선의 높이를 조절한다.	공 굴려서 반환점 돌아오기  선수는 앞에 놓여진 큰 공을 굴려서 10m 떨어진 반환점을 돌아온다. 동일한 선수를 배정한 팀을 나누어 릴레이 형식으로 실시한다.
공 넣고 공 가져오기  5m 앞에 두 바구니가 놓여 있거나 걸려 있다. 선수는 테니스 공을 가지고 첫 번째 바구니에 가서 공을 넣는다. 두 번째 바구니에 있는 공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음 선수에게 전달한다.	슈팅 성공 하고 돌아오기  초기에는 공을 가지고 아기 농구 후프까지 공을 가지고 이동하여 공을 드롭한다. 공을 그물에 드롭한 후에야 떠날 수 있다. 아기 농구 바구니 높이는 1.20m이다.

4. 체크

체크에서는 MATP가 스페셜 올림픽 대회와 특정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초보자 또는 아주 어린 운동선수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선수 내에서 스포츠를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각 활동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간단한 동작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선수들은 각 MATP들을 수행을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에 참여한다. 체크에서 진행된 MATP는 2015 브르노스페셜올림픽 지역게임에서 볼 수 있다.

양손으로 공 던지기 	변형 볼링 
선수는 가능한 한 멀리 던지는 라인에서 어깨 높이 에 걸려있는 목표물(굴렁쇠)에 던지며 3번의 실수를 허용한다. 서 있는 위치에서 농구공 또는 약 2kg까 지 나가는 중량의 공을 던진다. 선수에 따라서 휠체 어나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다.	9개의 플라스틱 핀은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라인에 서서 핀을 던진다. 3번을 시도하여 9핀 중 줄어든 개수를 확인한다.
매트 서전트 	지그재그 달리기 
부드러운 매트(예를 들어, 체조 카펫)에서 제자리에 서 높이 뛰어 공중에서 지면과 가까운 신체와의 거리를 추적한다. 선수는 세 번의 시도 중 가장 잘 나 온 기록을 기록한다.	20m 경로 사이의 고깔 또는 플라스틱 병을 지그재 그로 피하여 목표지점에 도달한다. 선수에 따라 고깔 또는 병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장애물 코스 	크롤링 릴레이 
25m 벤치, 매트, 콘, 농구 미션으로 이루어진 트랙을 차례로 통과하여 목표지점에 도달한다. 선수에 따라 장애물을 등반하지 않고 우회하는 대신 점프를 한다.	20m 일정한 간격으로 고깔이 놓여진 트랙을 공을 굴리며 지그재그로 통과하여 반환점을 돌아와 다음 선수와 바통 터치를 한다.

5. 영국 Special Olympics GB Bath 2013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스페셜올림픽 게임 안에서 중증지적 장애인을 위한 활동 훈련 프로그램인 MATP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바스지역에서 열린 2013 하계 스페셜올림픽 게임 Bath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MATP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스페셜올림픽 영국은 2014년 10월을 시작으로 MATP 선수의 규모 및 교육, 건강, 지역사회 실정에 맞추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노력해왔다. 이로 인해 많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MATP활동에 필요한 활동 범위와 규칙, 적합한 장소와 장비 그리고 훈련된 코치와 자원봉사자 등의 구성을 위해 새로운 MATP구조 및 지원 네트워크를 구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공 던지기	홉통 볼링
	
선수는 파트너가 든 후프에 공을 던져서 골인 시킨다. 3번을 시도하여 성공 횟수를 합산하고, 선수에 따라서 후프에 거리나 위치를 조정한다.	선수는 홉통에 있는 공을 힘껏 굴려서 핀을 쓰러트린다. 3번의 시도 후에 남아있는 핀의 개수를 확인한다.

6. 한국 2014 스페셜올림픽 중증발달장애인운동프로그램(MATP)

우리나라 역시 스페셜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MATP를 시행하였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장애극복의 의지와 재활의지를 심어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MATP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스포츠 요소를 지닌 종목을 개발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선수들에게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공을 드리블 하여 지정된 지점까지 도착을 하게 하거나, 근육의 경직도가 높아 팔을 들 수 없는 선수들에게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천장에 매달린 셔틀콕을 몇 회 이상 치게 하는 등 선수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내용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된 사례로는 2014년 8월 20일부터 열리는 제11회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유아선수프로그램, 중증장애인운동프로그램 등 MATP 대상자들과 대회에 참관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들, 그리고 본 대회에 참여하는 스페셜 선수 및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플로어 슛하기	공 드리블 하기
	
선수는 지정된 거리에서 플로어 볼을 쳐서 골대에 골인 시킨다. 3번을 시도하여 성공 횟수를 확인한다.	선수는 표시 테이프로 그려진 선을 따라서 하키채를 이용하여 공을 드리블 한다.
장애물 통과하기	티볼 치기
	
선수는 터널로 이루어진 장애물, 유니바 넘기, 후프 통과하기 등 여러 장애물로 이루어진 트랙을 이동한다.	선수는 티바(T-Bar)에 올려진 공을 친다. 선수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공으로 실시한다. 3번을 시도하여 성공 횟수를 확인한다.

7. 국내 외 MATP활동 개요

활동 이름	사용 기술	사용 도구
1. 옆으로 구르기	이동기술 (구르기, 점프, 걷기) 감각지각 (공간, 평형)	매트
2. 점핑 보드 멀리뛰기		점핑보드
3. 평형대 걷기		평형대, 얇은 일자 매트
4. 유니바 넘기		유니바
5. 터널 통과하기		터널 장애물
6. 공 지그재그로 굴리기	이동기술 (걷기) 물체조작기술 (굴리기, 차기)	짐 볼, 콘
7. 공 굴려서 반환점 돌고오기		킨 볼, 의자
8. 드리블 하기		축구공, 콘
9. 목표물에 공 차서 넣기	물체조작기술 (차기)	축구공, 미니골대
10. 멀리 차기		에어공, 거리표시 테이프
11. 변형 볼링		축구공, 볼링핀
12. 목표물에 콩 주머니 던져 넣기	물체조작기술 (던지기)	콩주머니, 그물망 링
13. 공 던져 넘기기		농구공, 줄
14. 공 멀리 던지기		다양한 크기의 공, 거리표시 매트
15. 티볼 치기	물체조작기술 (치기)	에어공, 티바, 티볼 배트
16. 탁구공 치기		탁구공, 탁구대
17. 매달려 있는 공 치기		에어공, 셔플콧, 철봉, 탁구채, 배드민턴 라켓
18. 혼동 볼링		볼링공, 핀, 혼동

① 감각지각기술	② 물체조작기술	③ 이동기술
		
평형대 걷기(평형감각)	미니 농구(던지기)	사다리 걷기(걷기)
		
터널 통과하기(공간감각)	매달려 있는 공치기(치기)	옆으로 구르기(구르기)

IV.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 지도서 활용체계

MATP 지도자는 본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총 2단계의 진단을 실시하여 중증발달장애인의 인지 및 운동발달 수준을 파악한 후 MATP 참여 대상 여부와 운동발달 수준에 적합한 단계로 배치하고 각 단계 별 활동을 지도한다.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 지도서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운동 및 인지 수준에 따라 2단계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MATP 1단계는 중증발달장애인의 기초적인 감각지각 활동과 다양한 신체활동 경험을 통해 기본움직임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동기술과 물체조작기술의 활동들은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MATP 2단계에서는 감각지각, 이동기술, 물체조작기술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최소한의 도움으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기본움직임 능력향상을 통해 스포셜올림픽 경기 종목에 참여하기 위한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감각지각, 이동기술, 물체조작 기술을 활용한 게임활동들을 제시하여 스포셜올림픽 픽 경기를 참여하기 위한 게임기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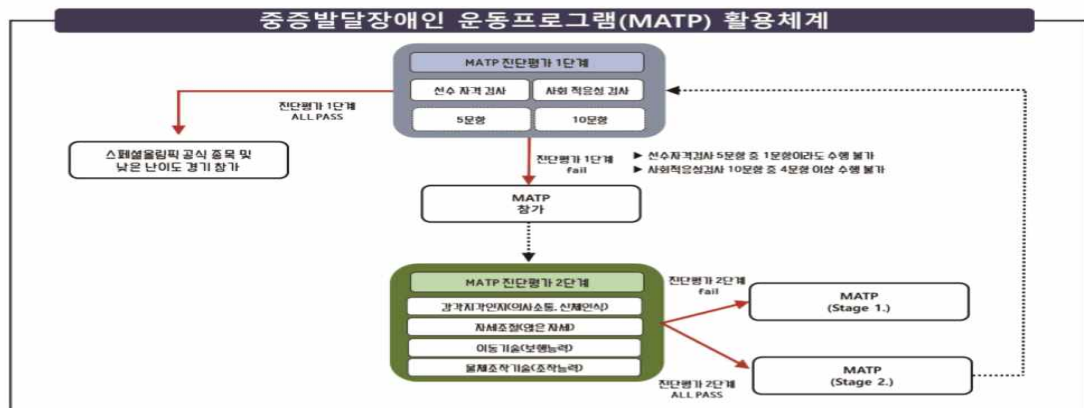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의 단계별 활동〉

구 분	MATP 1단계	MATP 2단계
목 표	기초적인 자세조절, 감각지각 활동과 다양한 신체활동 경험을 통해 기본움직임 능력 향상	감각지각, 이동기술, 물체조작기술 능력 향상을 통해 낮은 난이도의 스포셜 올림픽 경기 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활동구성	- 자세조절 활동 - 감각지각 활동 - 이동기술 활동 - 물체조작기술 활동	- 감각지각 활동 - 이동기술 활동 - 물체조작기술 활동 - 게임 활동

MATP 지도자는 중증발달장애인의 개별수준에 적합한 단계로 배치하기 위해서 진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지도서에서는 총 2단계의 진단을 실시하여 MATP 참여 대상여부와 중증발달장애인의 인지 및 운동기능 수준을 파악하여 적합한 단계로 배치하게 된다. 진단 1에서는 MATP 선수자격검사와 사회적 응성검사를 실시하여 MATP 참가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진단 2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의 감각·지각·인지, 자세조절, 기본운동기술, 물체조작기술 검사를 실시하여 MATP 단계별 활동에 배치하여 지도한다.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 진단 내용과 평가 기준〉

단 계	진단 1	진단 2
진단구성	- MATP 선수자격(5문항) - 사회적응성(10문항)	- 감각지각 신체인지(1문항) - 자세조절(1문항) - 이동기술(1문항) - 물체조작기술(1문항)
평가 기준	MATP 선수자격(5문항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적응성(10문항 중 7문항 이하 수행)	성공/실패



V. 단계별 중증장애인 운동프로그램(MATP)

중증발달장애인(MATP) 운동프로그램

구분	자세 조절	감각지각	이동기술	조작기술	게임활동
MATP 1단계	- 마음대로 움직이기 - 밴드 슈퍼맨 - 시계 바늘 운동 - 점 볼 오목이 - 선을 전달하기 - 수건 밀기 - 스쿠터 보드 - 침대 - 벽 달리기 - 의자 스케이팅 - 밴드 의자 - 밴드 바이킹	- 컵 옮기기 - 핸드 롤링 - 바구니 공 넣기 - 접시판 꽃기 - 과자 따먹기 - 공 초인종 - 저금통 채우기 - 보물찾기 - 신체부위 마주대기 - 다리 시계 - 날으는 양탄자	- 의자 걸기 - 매트 언덕 - 평행봉 걸기 - 매트 징검다리 - 스텝하늘 걸기 - 밸런스 볼 걸기 - 낙하산 통과하기 - 지그재그 터치 - 트램폴린 점프	- 탁구공 치기 - 끈 위에 공치기 - 공 주머니 치기 - 핸드 티볼 - 풍선 배구 - 리듬스틱 치기 - 경사로 롤링 - 벨크로 공 던져 붙이기 - 공 던져 쳐내기 - 목표물 슈팅 - 점 볼 벽 축구	
MATP 2단계	-	- 종이 스티커 떼기 - 터널 통과하기 - 탑 쌓기 - 링 걸기 - 자석낚시 - 탁구공 옮기기 - 탁구공 옮기기 - 평군대 걸기 - 링보 - 스파이 놀이 - 점기백기	- 선 따라 걸기 - 사다리 걸기 - 지그재그 - 이동하기 - 올라후프 - 기차놀이 - 올라후프 - 징검다리 - 켄거루 점프 - 점핑보드 - 트램폴린 - 뛰며 풍선치기	- 끈볼 굴러쇠 - 유니바 롤링 - 공 주머니 던지기 - 벨크로 공 던지기 - 농구공 슈팅 - 볼로볼 던지기 - 장벽을 넘어라 - 축구공 드리블 - 표적 탁구 - 타겟 배드민턴 - 티볼 치기 - 플로어볼 슈팅	- 스피드 터치 - 바구니 담기 - 색판 뒤집기 - 페그 보드 - 구역탈출 - 스쿠터보드 로켓 - 밧줄 스쿠터보드 - 달리기 - 스쿠터보드 롤링 - 카트 운전 - 스쿠터보드 썰매 - 디스크 축구

1. MATP 1단계 프로그램

기술	<MATP 1단계 운동프로그램>	
자세 조절	- 마음대로 움직이기 - 다람쥐 통 - 밴드 슈퍼맨 - 시계 바늘 운동 - 짐 볼 오목이 - 선물 전달하기	- 수건 밀기 - 스쿠터 보드 침대 - 벽 달리기 - 의자 스케이팅 - 밴드 의자 - 밴드 바이킹
감각 지각	- 컵 옮기기 - 핸드 볼링 - 바구니 공 넣기 - 접시콘 꽃기 - 과자 따먹기 - 공 초인종	- 저금통 채우기 - 보물찾기 - 신체부위 마주대기 - 다리 시계 - 날으는 양탄자
이동 기술	- 의자 걷기 - 매트 언덕 - 평행봉 걷기 - 매트 징검다리 - 스텝허들 걷기	- 밸런스 볼 걷기 - 낙하산 통과하기 - 지그재그 터치 - 트램펄린 점프
물체 조작 기술	- 탁구공 치기 - 콘 위에 공치기 - 콩 주머니 치기 - 핸드 티볼 - 풍선 배구 - 리듬스틱 치기	- 경사로 볼링 - 벨크로 공 던져 붙이기 - 공 던져 쳐내기 - 목표물 슈팅 - 짐 볼 벽 축구

2. MATP 2단계 프로그램

기술	<MATP 2단계 운동프로그램>	
감각 지각	- 종이 스티커 떼기 - 터널 통과하기 - 탑 쌓기 - 링 걸기 - 자석낚시 - 탁구공 옮기기	- 탁구공 옮기기 - 평균대 걷기 - 림보 - 스파이 놀이 - 청기백기
이동 기술	- 선 따라 걷기 - 사다리 걷기 - 지그재그 이동하기 - 훌라후프 기차놀이	- 훌라후프 징검다리 - 캥거루 점프 - 점핑보드 - 트램펄린 뛰며 종선치기
물체 조작 기술	- 킨볼 굴러쇠 - 유니바 볼링 - 콩 주머니 던지기 - 벨크로 공 던지기 - 농구공 슈팅 - 물로볼 던지기	- 장벽을 넘어라 - 축구공 드리블 - 표적 탁구 - 타깃 배드민턴 - 티볼 치기 - 플로어볼 슈팅
게임 활동	- 스피드 터치 - 바구니 담기 - 색판 뒤집기 - 페그 보드 - 구역탈출 - 스쿠터보드 로켓	- 밧줄 스쿠터보드 달리기 - 스쿠터보드 볼링 - 카트 운전 - 스쿠터보드 셀매 - 디스크 축구

◎ 교육 참여 소감 및 사진

MATP 운동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중증발달장애인의 운동 및 인지 수준에 맞춰 단계별 운동을 지도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각지의 기관 및 시설의 특수체육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MATP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가장 유익하였다.

교육을 통해 새로 습득하게 된 지도법 및 프로그램을 가지고 힘찬교실 수업에 접목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 연구개발에 힘쓰도록 하겠다.



하반기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사회복지시설 신입직원교육



주 최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기 간		2019. 09. 27 14:00-18:00
장 소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복지센터 2층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주간보호센터
	명 단	권기현, 윤다애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 09. 27
	시 간	4시간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1. 법인의 미션

1) 미션(Mission)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하느님 사랑을 증거한다.

2) 비전(Vision)

- 참된 영성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복지회
-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본당 사회복지회
-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시설 사회복지회

3) 전략(Strategy)

- 시설 : 본당과 시설간의 결연을 통한 지역복지의 실현
가입시설 종사자의 영성교육과 지원을 통한 교구 소속감 고취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확대 및 강화
- 본당 : 본당 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 인식 및 실천의지 고취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본당 사회복지의 체계적인 조직 확립
본당 사회복지분과 지구모임을 통한 슈퍼비전 강화
- 후원·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복지회의 인지도 강화
시설과 본당 사회복지활동의 홍보 업무 체계화
사회복지회 고유의 후원사업 개발

2. 윤리강령을 통한 핵심가치

1) 윤리(Ethics)

- 선과 악, 행위의 옳고 그름, 그리고 공정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규정한 규율
- 선악에 대한 판단기준의 체계
- 상이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도덕적 가치

2) 윤리강령서약서

- 건전하고 윤리적인 태도와 행동에 관하여 가톨릭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 향상시키고자 ‘가톨릭사회복지종사자 윤리강령’을 제정함.

3) 사회교리에 입각한 개념적 원리

- 인간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재화의 보편적 목적, 연대성의 원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보조성의 원리

3. 가톨릭사회복지의 이해 및 고유성과 실천원리

1) 가톨릭이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

-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전인적 존재로서의 변화와 성장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궁극적 목적으로 함.

2) 가톨릭사회복지의 고유성

- 교회의 존재 이유와 본질적 사명인 ‘사랑(caritas)’에 바탕을 두고 있음.
- 가톨릭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일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와 체계가 매우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 가치와 영성은 본질적으로 일반 사회복지시설과는 확연히 구별됨.

3) 가톨릭사회복지의 사명

- 사랑의 실천, 말씀의 선포, 전례(성사거행)

4)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근거한 실천원리

- 사랑실천, 교회의 본질
- 보편적 사랑실천, 영적돌봄 포함
- 국가와 다른 공동체와 협력
-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
- 전문적 역량과 마음의 양성 필요
- 개종 권유의 수단 삼지않음
- 당파/이념 벗어나 온전히 헌신
- 교계제도

4. 교육소감

- 권기현 : 이번 2019년 하반기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사회복지시설 신입직원교육을 통해 법인 및 복지관의 미션과 핵심가치, 가톨릭사회복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미션과 비전에 맞게 업무에 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교육 중에 각각의 법인 산하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톨릭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나는 과연 가톨릭사회복지 실천기관의 종사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음. 또한 앞으로 법인의 미션과 가치에 방향성을 맞추어 가톨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현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윤다애 : 내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미션 및 비전을 이해함으로써 기관의 가치관과 정신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음. 또한 법인의 미션과 비전을 토대로 나만의 미션 및 비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어 좋았음.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근무할 때 자신만의 비전과 가치관을 갖고 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내가 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 어떠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며 이용인들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음. 앞으로도 일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며 점검하며 근무 해야겠다는 다짐을 함. 교육을 통하여 내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법인의 구성과 하는일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기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음.

사회복지 중심에서 나를 만나다



주 최		휴먼임팩트 협동조합
기 간		2019년 10월 8일 (화)
장 소		우천복지재단 교육장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명 단	김수빈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년 10월 8일
	시 간	10:00~17:00(6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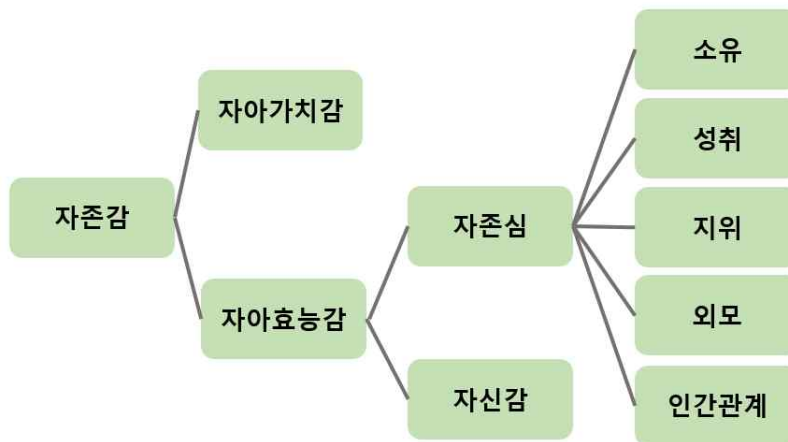
사회복지 중심에서 나를 만나다

1. 자기인식-자존감

1) 자존감이란?

(1) Nathaniel Branden : 자존감은 삶의 근본적인 어려움에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성향이다.

(2) 자존감의 구분



① 자아가치감 : 자신이 다른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감정, 욕구와 관련성이 높다.

② 자아효능감 :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다. 외부의 평가이며, 외적인 기준, 성장능력과 관련이 있다.

③ 자아가치감과 자아효능감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자아가치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며, 자아효능감과 구분하여 대화해야 한다.

2) 자존감 형성

사람을 자원으로 볼 경우 소비와 효능 입장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자산의 관점으로 볼 때 보존과 존재의 의미로 생각하게 된다. 인간은 불완전체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순위를 매기며, 권력을 비교한다. 그로 인해 실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며, 실수할 때 자존감 하락을 경험한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불완전한 사람과 좀 더 불완전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람을 보존과 존재의 의미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자기인식-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 찾기

1) 시스템 중심과 사람 중심

시스템 중심의 대표적인 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보편성과 편리함을 위해 일괄적으로 동일한 시험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또 다른 쉬운 예로는 신발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람들의 양발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신발 사이즈를 신는다. 이처럼 시스템 중심은 성장 및 효율성을 따진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경우 시스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며, 복지에 욕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예 : 장애인등급제 폐지)

2)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가치 찾기

스스로 또는 상대방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고유성’과 ‘나의 생명성’을 찾고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나의 고유성’이란 외모, 성격, 생각, 감정, 욕구, 역사 등을 뜻하며 불완전함이 존재할 수 있으나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들을 말한다. ‘나의 생명성’은 스스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해온 것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외에도 주체성, 관계성 등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3. 감정 돌아봄

1) 감정의 뜻과 종류

- (1) 감각 : 신체 기관을 통하여 안팎의 자극을 느끼거나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감정의 바탕이 된다.
- (2) 감정 :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다.
- (3) 감각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감정에 따라서 욕구를 느낀다. 그리고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감정, 욕구, 행동에 간격이 발생된다면 감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자신의 감정 돌아보기

- (1) 감정은 ‘자기인식-자기인정-자기표현’ 과정을 통해 돌아볼 수 있다. 불편했던 감정이 있다면 언제 그러한 감정이 들었는지 작성한 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감정을 객관적인 단어로 표현한 후 TV에 넣고 그 상황이 중계 된다고 상상해보면서 그 감정이 실제로 느낀 감정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감정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2) 감정 돌아보기는 ‘감정 알아채기-직면하기-객관화하기-인정하기-드러내기-공감하기’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은 순환과정이다.

3) 감정나누기 활동(그룹 활동)

- (1) 현재 떠오르거나, 알고 있는 감정을 작성한다.(30개 정도)
- (2)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 (3) 작성한 감정 중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3개를 따로 배치한다.
- (4) 배치한 감정을 그룹과 공유하고, 3개의 감정 중 가장 바꾸고 싶은 감정을 작성했던 감정으로 교체한다.(기존 작성에 필요한 것이 없다면 새로 작성 가능함)
- (5) 새로운 감정이 무엇인지, 그 감정을 선택한 이유를 공유한다.
- (6) 남은 구성원들은 교체된 감정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 발화자에게 주고 싶은 감정을 이유와 함께 선물한다.(없을 시 새로 작성 가능함)
- (7) 감정을 바꾸기 위해 행동만을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감정에 대한 생각을 통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하도록 한다.

4. 자기수용 및 인정

1) 공감

- (1) 공감은 호감, 호기심, 관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 (2) 호감(favor=好感) : 좋은 감정을 느끼고 좋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 (3) 호기심(curiosity=好奇心) :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뜻한다.
- (4) 관심(interest=關心) : 어떤 일이나 대상에 흥미를 가지고 마음을 쓰거나 알고 싶어 하는 상태를 말하며,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
- (5) 관심(concern=觀心) : 마음의 본바탕을 바르게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2) 공감과 동정 구분

공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해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거나 느끼는 기분이다.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거나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다. 즉, 공감은 그 사람의 감정과 가치를 보는 자아가치감이 바탕이 되는 것이라면 동정은 상대방의 문제를 보는 자아효능감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볼 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되며, 공감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지자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지지자와 문제해결자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지만 단순한 문제해결자에서 끝내지 않도록 올바른 공감을 할 필요성이 있다.

3) 사회복지사로서 올바른 공감법

(1) 공감의 3단계

- ① 1단계 : 정서적 전염. 가장 하위 단계(예:울면 옆에서 같이 울기)
- ② 2단계 : 동정심.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마음
- ③ 3단계 : 역지사지.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

(2) 공감의 방해요소는 편견이다. 이때 편견은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준이 높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또한 본인이 상대방보다 많

이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올바른 공감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만날 때 이용인을 만나러 가는 것인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인지 생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인식 및 수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자기표현과 욕구

1) 사회적 욕구와 개인적 욕구의 구분

욕구는 원하는 것(도파민, 욕망신경계와 관련)과 좋아하는 것(엔도르핀, 쾌락신경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적 욕구는 좋아하는 것과 쾌락신경계와 연결되며 사회적 욕구는 원하는 것과 욕망신경계로 연결된다. 이때 사회적 욕구는 광고 및 학습의 영향을 받는다.

2) 자신의 욕구 발견하기

- (1) 지난 한 달 동안 한 일 10개 작성하기
- (2)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일 10개 작성하기
- (3) 작성한 것 20개를 나, 가족, 사회적인 일로 각각 분류하기
- (4) 분류한 후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로 구분하여 작성하기
- (5) 활동을 통하여 평상시 어떠한 부분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지 알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은 현재형이고 개인적 욕구이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은 미래형으로 사회적 욕구에 해당된다. 활동을 통해서 욕구를 분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교육 참여 소감

교육을 통해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는 것만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해 변하지 않는 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교육을 진행한 전성실 강사님은 상담을 나가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용인(대상자)을 만나러 가는 것인지,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고 실제로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나 그 사람과 진정으로 공감하는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의 구분을 통해 내가 현재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과 집중해야 하는 일들의 구분이 필요함을 느꼈다.

사회복지 리더를 위한 “복지현장 조직혁신”



주 최		사회복지책마을
기 간		2019. 10. 21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기획홍보팀
	명 단	박성목, 고광원
	인 원	2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 10. 21
	시 간	2.5H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현장 조직혁신

1. 조직문화

1) 조직민주주의

○ 구성원이 주인이 되어 : 주인이 된다 함은 주인의식과 행동을 말하며 ‘권한’을 얻는 것을 의미함.

○ 구성원을 위한 경영 : 열정과 몰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민주주의 문화 속에서 조직의 성과가 높아지는 이유는, 구성원이 주인이 될 때 주인의식이 일어나고, 조직이 구성원을 위할 때 헌신을 통한 조직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조직민주주의의 관건은 구성원의 ‘참여’이며, 참여를 위한 조건은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것과 협의하는 것,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조직이 갖는다.

①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정보의 균형과 개방’이 필요하며,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채널이 가동되어야 한다.

② 협의를 위한 전제조건은 ‘들리거나 나쁜의견은 없다’라는 믿음이며, 이러한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회의가 아니라 의견을 주고 받는 자연스러운 일상행위로의 ‘협의’방법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과지향이 아니라 과정지향이며, 그 과정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경쟁력 속에 나타난 결과가 더 탁월하다고 보는 것이다.

2) 아래로부터의 인권

‘아래로부터의 인권’이란 지역사회개발뿐만 아니라 조직개발에서도 필요하다. 지역에 사는 사람과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간만 다를뿐 모두 같은 시민이다. 때문에 전문가에게 이양되는 권한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침과 매뉴얼,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구성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 맡겨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구성원들도 역시 인격체로서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조직은 가족인가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일과 삶이 분리되어야 하되, 균형이 잡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조직의 경우 가족같은 분위기를 체험하거나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기대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명령과 지시가 있는 회의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꺼내며 대화하는 회의문화

② 권력있는 리더가 먼저 헌신적행동을 통한 모델링으로 헌신의 확산을 요구

- ③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
- ④ 상하구조속에서 작동되는 지도감독의 피드백이 아니라 조언과 충언으로 이루어진 피드백. 이는 비난이나 무시가 아니라 성과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의식에서 나타나야 함.
- ⑤ 가족구성원들은 권리의 행사를 통해 스스로 가족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조직의 구성원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 '조직의 주요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가 구성원을 스스로 주인으로 인식하게 함.

4) 다양성의 인정

브리टे니커 대사전에 수록된 단어의 360만개의 30배가 넘는 단어가 수록된 위키피디아. 이는 전문가들의 집필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방법에서 탈피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지식과 정보를 올리고, 수정·보완이 가능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키피디아의 공유경제 핵심은 다양성이다. 인간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조직도 위 사례처럼, 다양한 집단들이 문제해결에 참여할 때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

같은 영역이 아닌 역지로라도 복지, 경제, 사회, 문화계의 다른 분야 사람들과 서로 만나야 하며, 자신의 조직을 개방하여 다른 직종의 인재들이 유입되게 하여야 한다.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집단과 인재들이 함께 모일 때 그 가능성은 커지며, 그러한 다양성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조직의 가치는 높아진다.

2. 리더와 리더십

1)리더의 역할

리더는 조직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비효율적 업무에 기인한다. 형식적인 업무로 인하여 조직은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직을 발생시키며, 수동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낸다. 구성원의 동기부여가 저하되면서 저성과 조직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자문에 대한 결정은 리더가 정한다. 리더가 형식적인 과업의 양을 줄여줘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대하여, 조직 나름대로의 기준을 조금은 낮추거나 바꾸면, 확보된 시간과 여력만큼 지역사회문제와 사회적 약자와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리더는 그 시간을 구성원에게 위임한다. 위임된 시간속에서 구성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이 리더의 구실이고 책임이다. 리더란, 과업을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들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다. 형식을 깨어버림으로써 구성원이 살아난다.

2)리더는 왜 형식에 갇히게 될까?

사회복지조직에 주어지는 각종 평가와 지침에 대한 장·단점은 극명하다. 정부는 사회복지조직에 일정기준을 요구했고, 많은 조직들이 그 기준에 맞춘 것은 장점이다. 그러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평가와 지침의 폐해는 목표달성의 방법을 지표에

맞췄고, 이로 인해 조직과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방법)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화 된 조직은 이 형식 안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저항한다. 심지어 문제의 발견가지도 지표에 따른다. 리더는 새롭고 건강한 문화보다 평가결과의 성공경험에 취해버려 변화를 거부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선택한다.

이러한 형식의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문화를 움직이는 것이다. 외부의 형식과 척도가 지나친 가치가 되고 있는 기금, 성공의 기준을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바꾸어 보자. 문화를 움직이는 방법은 리더의 행동변화이다. 행동의 변화는 구성원들 보다는 리더에게 더 요구된다. 구성원들이 가진 틀보다도 리더가 구축한 틀을 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형식을 깨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리더의 몫인 것이다.

3)리더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권력은 행동의 불편함을 싫어한다. 권력은 편의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의전이나 예우라는 의미를 담아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학습된 것이며 리더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믿음이 있다. 많은 절차들이 개선되어도 리더의 편안함을 보호하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리더들은 불편해져야 한다. 인재양성과 구조의 변화는 리더중심이 아니라 조직차원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 시작은 리더가 자신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형식과 규정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지켜낸다. 변화의 시작은 리더의 행동으로 그 틀을 깨어 나가는 것이다.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권을 위임하며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구성원들이 안락하게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고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나태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권한의 위임과 일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내린 리더의 '불편한'결정이다.

4)임파워먼트와 당사자주의

인사평가, 다면평가, 상향평가, 교차평가, 계획서, 보고서, 사업평가, 분기평가, 내부기안, 회의 등은 모두 관리와 통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메카니즘이다. 이러한 관리와 통제로 인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는 리더이지만, 모순적이게도 자신이 경험하는 똑같은 방식을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비합리적으로 부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임파워먼트와 당사자주의로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조직구성원들이 임파워먼트와 당사자주의에 의해 사회서비스를 신천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먼저 이러한 사고에 의해 일하고 있어야 하지만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 실천으로 나올 리가 만무하다.

위의 과업들은 리더의 결정에 의해 버려야 할 것 들이다. 구성원에게 자발성과 창의성을 원한다면 먼저 이러한 과업들의 형식들을 깨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임파워먼트와 당사자주의를 실천하라. '그럼 관리와 통제는 어떻게 누

가 하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관리와 통제는 리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사회가 하는 것이다. 조직의 핵심가치와 규범으로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리더가 있다는 존재만 알고 있고,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문화를 ‘건강한 조직문화’라고 한다.

3. 권한과 자율성

1) 전문가주의를 경계하라

전문가주의란 전문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전문성이라는 권위가 부당하게 권력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인간의 욕구를 정의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등의 자원을 배분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그것이 욕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권위라면 마땅히 인정받아야겠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집단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변질된 권력이다. 그리고 이 권력은 욕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순종을 요구한다.

이제 장애인재활상담과 정신보건, 의료, 학교의 영역은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 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화의 목적을 위해 법제화되었다면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집단을 유지하거나 사회구조를 지탱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전문가이지 결코,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기능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개별화와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2)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가 아니라 ‘책임에는 권한이 따른다’

TFT라는 실행문화가 있다. 여기서 T는 과업task이다. 그리고 F는 권한force이다. 과업은 책임이며 권한은 결정권이다. 즉, TFT의 의미는 ‘과업’이라는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결정권’이라는 ‘권한’이 부여된 ‘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TFT는 과업만 주어질 뿐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과업이 해결될 수 없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도 않고 일의 의미도 부여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리더가 과업의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않거나, 의사 결정을 회피 또는 뒤집어버리는 일이 횡횡하면 TFT는 그저 부가적인 고된 과업이 될 뿐이다.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의견을 꺼내지 않는다, 소극적이다.’라고 불평하는 리더들이라면,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아니라 권한을 먼저 주어야 할 것이다. 권한은 두려움을 해소한다. 책임을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주인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한이 없음으로 일을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다. 의견을 꺼내지 않는 것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한이 없음으로 자신의 의견이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다. 소극적인 이유는 자발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일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료와 상급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두려움이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권한이다.

3) 우리 스스로 자율성을 통제한다

사회복지조직을 영리조직이나 공공조직과 비교할 수 있는 특성은 법과 규제보다는 민간조직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핵심동력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조직의 자율성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조직보다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관리주의와 기능주의로 작동된다. 자율성이 핵심인 비영리조직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채 경쟁력은 점점 더 퇴보하고 관료적 조직으로 퇴화되는 현상의 원인은 자기통제에 있다. 장기적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 자율성보다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자율성이 퇴보하는 내부요인은 ① 통제의 안정성, ②책무성에 대한 오해, ③ 결과적 공정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제의 안정정보다는 도전과 실패를 권장하고 기다려주는 문화, 법과 지침, 매뉴얼보다는 규범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구성원 중심의 실행적 문화, 결과적 공정정보다는 절차적공정성으로 변화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실패해도 기회가 보장된 사회가 복지국가이다.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 것이며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마침내는 성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조직 역시 실패를 인정해주고 기회를 보장해줌으로써 자율적 도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기여와 성장은 반복되는 실패와 도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또한 법과 지침의 준수는 준법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을 했다고 해서 책무성을 실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주어진 자유로움 속에서 새로운 도전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성이라고 할 수 있다.

4. 동기부여

1)구성원은 무엇으로 동기부여가 될까?

동기부여는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내가 원하듯이 상대방도 원하며, 나에게 잠재된 에너지가 있듯이 상대방도 잠재력이 있으며, 내가 촉진적 리더를 만나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듯이, 상대방도 촉진적 리더를 만나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인간임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과 함께 대화를 시작해보자. 동기부여는 그렇게 시작된다. 그러면 그들이 춤을 출 것이다. 자유롭게 해엄을 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지도감독, 통제에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 도전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조직이라면 말이다.

2)바벨탑은 왜 무너졌을까?

조직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개별적 다양성과 인격이 존중되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메시지를 조직이 경청하는 것이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언어의 혼잡이 아니다. 받아들임의 소통이 단절된 것이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은 것이다. 상대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조직이 갈등하는 이유는 받아들임의 경청의 문화가 명령과 통제에 의해 단절되었기 때문이며 구성원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제언

-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가 강의를 하여 참여도 및 집중도가 높은 강의가 되었음. 또한, 실제 근무하는 시설의 사례를 들며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주어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
- 초임 중간관리자로서 리더쉽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나 강의를 들으며 중간관리자로서 발휘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과 팔로워쉽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정리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시대적 문화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과 같이 리더쉽 및 팔로워쉽에 대한 의미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시대적 문화에 맞는 리더쉽과 팔로워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움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 일방적인 팔로워쉽을 기대하기보다는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행동하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즐거움과 의미를 줄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원활한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림이 필요하며, 직원들에게 권한과 지속적인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함.
- 이번 강의를 통해 스스로 현재 기획홍보팀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었으며, 배우고 느낀 것들을 팀운영에 반영하여 소통하는 팀문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함.
- 관리자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아닌 전 직원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도록 유도하고 관리자 역시 권한의 중심이 아닌 직원의 한사람으로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을 통해 제공된 서적을 통한 스터디나 나눔의 기회를 마련하여 중간관리자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음.

발달장애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CIRCLES”



주 최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기 간		2019.02.12.(화)~2019.03.05.(화)
장 소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4층 세미나실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변재봄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02.12.(화)~2019.03.05.(화)
	시 간	오후 2시~5시/ 총 12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교육 : CIRCLES

1. CIRCLES-친밀감과 대인관계

1) 개요

- 1983년에 미국의 James Stanfield 출판사에서 소개된 사회-성교육 교구
- 6가지 색깔의 circles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친밀감과 관련된 행동을 범주화함
- 인지, 언어, 시·청각, 대·소근육운동 등 다감각적 활동으로 구성함.
- Circles의 기본 목표는 학습자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데 있음

2) 발달장애인 성교육에서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

- 적절한 성행동이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의미함
-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거리와 친밀감의 다양한 수준, 사회적 행동에 있는 뉘앙스를 잘 알지 못함
- 발달장애인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음

3) 성이 포함된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위해 발달장애인이 학습해야하는 사항

-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
- 사회적이고 성적인 개인공간과 사회적 거리, 사회-성적 개념
-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세련되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 친밀감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만짐, 말, 신뢰가 있다는 것
- 각 동그라미는 색깔, 행동, 친밀감, 거리감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

4) CIRCLES의 특징

(1) 사회적 역할을 범주화하고 그와 관련된 만짐(Touch), 말(Talk), 신뢰(Trust)와 함께 해당되는 색의 Circle을 포함한다.

◎ 만짐(Touch): 나와 서로의 몸 어디를, 얼마나 많이 만질 것인가를 뜻함

◎ 말(Talk): 다른 사람과 사적인 말과 공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뜻함

◎ 신뢰(Trust):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가를 뜻함

(2) 영상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명해 주고 대화의 수준과 만족의 정도, 만짐의 정도를 보여준다. 영상은 각 영역별 색깔의 특성을 설명하고, 짧은 에피소드를 통하여 실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사회적 역할과 적절한 색의 Circle을 매치시키고 학습자들에게 그에 맞는 행동을 알려준다.

- (4)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과 자신들의 실제 삶을 비교·대조할 수 있다.
- (5) 자신이 맺고 있는 여러 대인관계를 평가하고, 서로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만짐, 말, 신뢰를 선택하도록 배운다.
- (6) 만짐, 말, 신뢰는 대인관계에 있는 행동, 인지, 애정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다양한 관계에 있는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5) CIRCLES의 기대효과

- (1) 다양한 대인관계에 있는 친밀감의 다양한 수준을 구별하고 그에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 (2) 사회규범과 나이에 맞게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방법을 가르친다.
- (3) 개인적 책임감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잘 할 수 있는 기초를 놓는다.
- (4)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발달시킴으로써 자기결정과 상호존중을 잘 하도록 돕는다.
- (5)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복잡한 세상 안에서 더 잘 살도록 돕는다.

2. 여섯가지 색의 Circles와 그 의미



1) 보라색의 사적인 Circle : 나

- 당신은 당신 썬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만질 수 없다.
-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당신도 그 사람을 만질 수 없다.

◎ 만짐(Touch):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고 사적행동을 위한 사회규범을 지키면서 당신 스스로의 몸을 만질 수 있다. 누가 자신을 만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말(Talk):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신 자기 문제를 혼자 조용히 생각해서 해결하기 위해 속으로 말한다. 누구와 말하고 어떤 말을 할지 자신이 결정한다.

◎ 신뢰(Trust):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자기 느낌을 믿는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2) 파란색의 껴안는 Circle : 가족

- 당신을 껴안을 수 있고 또 당신이 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의 가족과 애인이다.

◎ 만짐(Touch): 사랑을 보여주지만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가족을 꼭 껴안는다.

◎ 말(Talk): 어떤 문제, 심지어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가족에게 말할 수 있다.

◎ 신뢰(Trust): 자기 가족을 전적으로 믿는다.

3) 초록색의 가볍게 안는 Circle : 애인, 친척, 친한 친구들

- 당신이 가볍게(다정하지만 성적인 껴안음이 아님) 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의 친한 친구들이다.

(1) 애인

◎ 만짐(Touch):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애인을 껴안는다. 친밀하게 애인을 만지고 낭만적으로 껴안고 키스한다.

◎ 말(Talk): 애인과 가장 친밀하고 낭만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신뢰(Trust): 애인의 느낌을 존중한다. 애인을 믿고 애인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2) 친척

◎ 만짐(Touch): 가볍게 껴안으며 애정을 나타내지만 몸을 꼭 껴안지는 않는다.

◎ 말(Talk): 개인적인 소식을 나눌 수 있으나 그들과 친밀한 것은 아니다.

◎ 신뢰(Trust): 친척들을 대개 믿는다. 친척들이 일부러 상처주지 않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도울 것임을 안다.

(3) 친한 친구들

◎ 만짐(Touch): 특별한 경우에 친절하고 애정어린 방식으로 친구들과 가볍게 껴안는다.

◎ 말(Talk): 사적인 얘기나 유쾌한 잡담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한다.

◎ 신뢰(Trust): 친구들이 일부러 자신의 감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로 믿을 수 있다.

4) 노란색의 악수하는 Circle : 이웃사람들, 아는 사람들

- 당신은 아는 사람들과 악수하고 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될 때 상대와 악수한다.

(1) 이웃사람들

◎ 만짐(Touch): 인사할 때만 그들과 악수하고, 이 때 손만 만진다.

◎ 말(Talk): 이웃사람들과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지만 그들과 정중하게 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 신뢰(Trust): 이웃사람들을 조금만 믿는데, 그들의 이름 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아는 사람들

◎ 만짐(Touch): 권위가 있는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만 그들과 악수하며 이 때 손만 만진다.

◎ 말(Talk): 아는 사람들과 사적관계를 갖지 않지만 그들에게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

◎ 신뢰(Trust): 아는 사람들을 조금만 믿는데, 그들의 이름 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5) 주황색의 손 흔드는 Circle : 어린 아이들

- 당신은 어린아이들에게 손 흔들고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 만짐(Touch): 어린 아이들에게 손 흔들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주지만 그들을 만지지는 않는다.

◎ 말(Talk): 어린아이들에게 짧게 응답해 주지만 그들과 길게 말하지는 않는다.

◎ 신뢰(Trust): 어린아이들을 거의 믿지 않으며, 미성숙하고 어른의 책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6) 붉은색의 낯선 사람 Circle : 지역사회 도우미, 의료진, 완전히 낯선 사람들

- 당신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일과 관련하여 접촉한다.

- 당신은 낯선 사람을 만지지 않는다.

- 낯선 사람은 당신을 만지지 않는다.

- 누가 당신을 만질 수 있는지와 누가 당신을 만질 때 “안돼”라고 말할 때와 그 곳을 떠날 때를 당신이 결정한다.

(1) 지역사회 도우미

◎ 만짐(Touch): 당신을 만지거나 당신이 그들을 만질 수 있는데, 일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말(Talk): 일과 관련해서만 지역사회 도우미들과 말할 수 있다.

◎ 신뢰(Trust): 그들의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다.

(2) 의료진들

◎ 만짐(Touch): 건강 관리 및 진료를 위해 당신의 몸의 사적인 부위까지 만질 수 있다.

◎ 말(Talk): 건강에 대한 사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 신뢰(Trust): 그들의 일과 관련해서만 믿을 수 있다.

(3) 완전히 낯선 사람들

◎ 만짐(Touch): 낯선 사람들을 만지지 않는다.

◎ 말(Talk): 낯선 사람들과 말하지 않는다.

◎ 신뢰(Trust): 낯선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3. 참여소감 및 적용점

- ‘CIRCLES: 친밀감과 사회적관계’는 6가지 색의 경계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방법으로 당사자의 주체성, 결정권을 중요시하며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이 가장 인상깊었음.

- 사례관리 담당자로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와 상담시에 대인과의 사회적 거리와 스킨십에 대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음.

본 교육을 통하여 담당자가 사회적 관계와 친밀감의 각 영역에서의 말, 만짐, 신뢰에 대해 구분하고 이해하며,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집중사례관리의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친밀감 및 사회적 행동을 지지하고자 함.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사회복지시설 신입직원교육



주 최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기 간		2019년 3월 22일(금)
장 소		천주교인천교구 사회복지센터 2층 세미나실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운영지원팀
	명 단	변새봄, 정은수, 박금숙
	인 원	총 3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년 3월 22일(수)
	시 간	14:00~18:00(총 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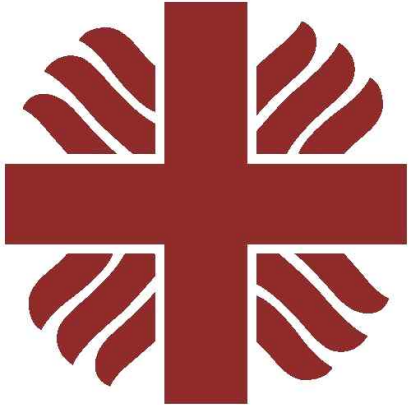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사회복지시설 신입직원교육

1. 법인의 미션 및 핵심가치(정진호 교육 담당)

1) 법인 소개

구분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마크		
소속	비영리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법인 (보건복지부-인천시청)
소재지	인천 동구 박문로 1(송림동)	인천 중구 답동로 23 사회복지센터(경동)
설립일자	1962. 11. 14.	2013. 7. 18.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법인은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 이전 기관의 경우 재단법인, 설립이후인 경우 사회복지법인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법인을 쉽게 알 수 있음.

2) 미션&비전&전략

(1) MISSION(미션)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하느님 사랑을 증거 한다.

(2) VISION(비전)

- ① 참된 영성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복지회
- ②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본당 사회복지

③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시설 사회복지

(3) STRATEGY(전략)

① 시설

- 본당과 시설간의 결연을 통한 지역복지의 실현
- 가임시설 종사자의 영성교육과 지원을 통한 교구 소속감 고취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확대 및 강화

② 본당

- 본당 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 인식 및 실천의지 고취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본당 사회복지의 체계적인 조직 확립
- 본당 사회복지분과 지구모임을 통한 슈퍼비전 강화

③ 후원·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복지의 인지도 강화
- 시설과 본당 사회복지활동의 홍보 업무의 체계화
- 사회복지회 고유의 후원사업 개발

2. 가톨릭사회복지 이해하기(박성수 부회장 신부)

1) 가톨릭 사회복지를 ‘왜’ 알아야 할까?

- (1)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2) 개인적인 정체성과 조직의 정체성이 일치되고 조화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며 발전하고 개인도 성장할 수 있음.
- (3) 따라서 소속된 시설의 직원으로서 자기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명확히 하고 소속된 시설의 운영방침, 미션과 비전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일치해야 함.
- (4) 가톨릭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함.
- (5) 가톨릭 신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하는 기관의 기본토대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2) 가톨릭 사회복지의 개념과 기본 사상

“가톨릭 신앙과 가치가 우리나라 동기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가톨릭적 인간 이해와 사회관을 바탕으로 관련 인문·사회과학과 전문 방법론의 도움을 받아 인간완성에 장애가 되는 개인 및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

3)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

- (1) 정체성[고유성] -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① 개인적 정체성 -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특질, 신념, 기술 등)로 구성되는 ‘자기개념’

② 사회적(집단적) 정체성 - 사회집단과 범주의 구성원들이 공유 하는 ‘자기개념’

- (2)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 조작적 정의

①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회의 이념에 동의하여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 단체, 시설, 기관에 소속되고, 자신과 이 집단을 동일시하여 다른 집단과의 비교과정에서 고유성, 독특성, 우월성을 느껴 자기-가치의 느낌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②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단체, 기관, 시설의 운영주체가 집단의 구성원들과 가톨릭 교회의 이념을 공유하고, 집합적으로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또는 이를 통해 얻어진 일체감, 가시적 이미지

(3)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 모색 방향

① 다양한 역할 주체들이 자유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가톨릭 사회복지가 새로운 상황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

② 미시적 영역에서 고유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앞서의 차별화 전략, 강점 강화 전략, 그리고 약점 보완 전략 모두를 적용

③ 종교성/영성을 강화하며, 가톨릭 종교 강요 혹은 개종권유의 방향이 아닌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신의 내적동기를 신앙에서 이끌어내는 것

④ 우리가 강점을 보여 왔던 영역, 가치, 또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율성의 영역을 점차 확대

(4) 가톨릭 사회복지 특성 및 강점의 고유성 8가지

① 재정의 투명성 - 회계 관리부분의 정직한 이미지 각인

② 헌신성 - 신원을 막론하고 헌신적으로 투신하는 사랑의 모범

③ 추가 자원동원 능력 - 인적자원 동원(자원봉사자), 물적자원 동원(별도의 후원회 조직)

④ 신속성과 직접성 -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강점, 가장 밀접한 일차적인 직접성 높음.

⑤ 조직적 통일성 - 교구 및 전국단위 지원체계 통일성 기하기 용이함.

⑥ 풍부한 영성적 자원 보유 - 종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 풍부하게 보유

⑦ 국제적 네트워크 - 종교를 통한 정보의 통로역할

⑧ 종교에 대하여 포괄주의적 접근태도 - 교회의 영향력 확장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에 권력화에 대한 이야기 없음.

4)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 실현의 구성적 요소(교회의 사회교리 주요 원리를 중심으로)

(1) 가톨릭 사회교리

① 실천의 궁극적이고 확실한 근거로 삼게 되는 거룩한 전통 가운데 현대에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가르침

② 성경과 교부들의 전통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옴.

③ 그 원천을 성서, 교회의 교부들과 대 신학자들의 가르침, 교도권과 특히 최근 교황들의 교도권에 두고 있는 교의적 방향 설정들 및 활동 기준 총체

(2) 가톨릭 사회복지의 고유성과 실천 방향 제시

“사회생활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원리 3가지”

① 공동선

- 인간의 기본권을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무도 제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쉽고 충만하게 자기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회생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

② 연대성

- 개인들 간에 개인과 사회, 민족들 간에 상호 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원리

③ 보조성

- 국가와 같은 상위 단체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

4)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 실현의 구성적 요소(‘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회칙을 중심으로 8가지)

(1) 사랑실천, 가톨릭 사회복지활동은 교회 본질의 한 부분이다.

(2)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한다.

(3) 종사자의 전문적 역량과 마음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

(4) 당파적인 전략과 원칙에서 벗어나 온전히 헌신하여 직접 선행을 실천한다.

(5) 사랑을 개종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6) 교계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7) 투명한 운영과 충실한 사랑의 증언으로 국가기관과 다른 공동체들과 협력한다.

(8) 보편적 사랑 실천이고, 영적인 돌봄까지 포함한다.

3. 교육 소감

- 본 관이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산하기관이며,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가 설립된 이후 협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됨.

-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됨. 법인이 산하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하고 있으나 동시에 가톨릭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함을 재인식함.

공공복지의 이해와 활용



주 최		사회복지책마을
기 간		2019년 7월 25일 9:00~12:00
장 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변새봄, 김석범 사회복지사
	인 원	2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년 7월 25일
	시 간	9:00~12:00(3시간)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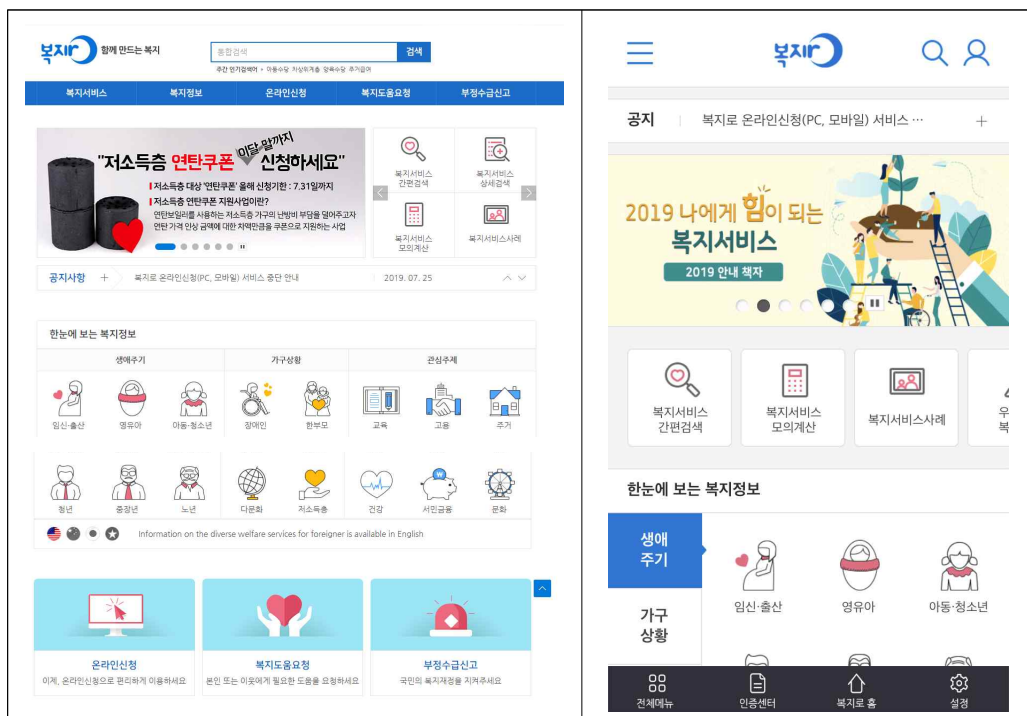
공공복지 이해와 활용

1. 교육 내용

- 강사: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신청해야 받는다.

-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시민이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사회복지사를 만나 공공서비스에 물을 때.. 시민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인 것은 아닐까?
- 복지포에서 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관심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다.



- 국가 예산의 34%가 복지예산이고 이는 국방예산 10%의 3.4배이다.
- 미성년자는 부모가 신청하면 되지만, 성년이 되면 장애인도 본인이 신청해야 받는다.
-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 국가장학금을 연계하면 저소득층은 사실상 국공립대학교까지가 무상교육이다.
- 아동수당,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등 보편적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를 신청하면 1회 신청시 향후 5년 동안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신청해야 받는다, 신청해야 준다는 것을 널리 널리 알려야 한다.

(2) 알아야 신청한다.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 적다.
- 기초생활보장에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다르고, 이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적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의 반납, 추납, 연기제도 등을 활용하면 노후 소득보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 청년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18세 청소년에게 국민연금 가입하여 선물하자.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60세에 도달하더라도 10년을 채우지 못 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생애주기별로 건강검진+암검진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연령, 성별에 따라 무료 검진의 종류를 확인하자.
- 치매보험에 들기 전에 치매선별검사부터 받아야 한다.

(3) 배워서 남주는 사회복지사,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되자.

- 많은 국민은 가난한 사람만 복지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 지역아동센터, 학교사회복지사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복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자.
- 대학교 특례입학, 국가장학금, 자립정착금 등을 통해 자립능력을 키우자.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 상황) 직업을 바꿔야 자립할 수 있다.
- 토지주택공사 전세자금대출+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를 통해 주거의 질을 확실하게 높인다. 처음부터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없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국민임대, 공공임대로 이동하며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자.
- 국민연금 등 5대 사회보험을 활용하면 노후대책 등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다.
- 자신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알려준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각종 사회보험 등을 널리 알려주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자신이 하는 일과 연계하여 복지를 널리 알린다. 예컨대, 대학생+1급 시험준비+취업+역량강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복지상식을 찾는 두 가지 방법)
- 복지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129로 상담하세요.”와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준다.
- 이제 사회복지사는 돈, 사람, 조직을 활용하여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2. 교육 참여 소감

- 변새봄: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에서 만나는 이용인들 중 다수는 장애인연금부터 기초생활수급 혹은 기초연금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한다면 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안내하고 생활의 개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용교 교수 역시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러한 강의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복지 전달체계는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복잡하며 장애 등급제 폐지로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교육과 자료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먼저 공부하고 ‘배워서 남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한다.

- 김석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일까? 모르면 모른 상태로 계속 살겠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괜히 손해 본 기분이 든다.

교육을 들으면서 현재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에 나도 포함될 수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며 나 역시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는데, 만약 배움에 열정이 있는 노인분이 계시다면 노인대학보단 일반대학에 가야 혜택이 많다는 의외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과거에 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 있는 경우의 어르신은 현재도 과거와 같은 조건으로 연금반환일시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여러 클라이언트를 발굴하여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하고 복지서비스에 관심을 갖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공개 Conference(19차)



주 최		서울시사회복지사회협회
기 간		2019.09.02.(월) 14:30~17:30
장 소		서울시사회복지사회협회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변새봄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09.02.(월)
	시 간	14:30~17:30(3시간)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 공개 Conference(19차)

1. 주요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 슈퍼바이저: 이기연 교수(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심정원 관장(성산종합사회복지관)

1) 사례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1) 사례 개요

- C't: 11세/여/ADHD 소견/초등학교 4학년
- 가족: 한부모 5인 가구(조모, 부, 오빠2명, C't)
- 주요 욕구: 학교폭력, 아동학대(부), 모의 부재 등에 따른 C't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완화
- 개입 목적: C't가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 개입 기간: 1년(담임교사→교육복지센터→사회복지관으로 의뢰)
- 주요 개입내용: C't와 정기적인 상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을 설정(부모가 원하는 것)하고 보상 혹은 벌을 수여
- 기타: 사례관리자는 강점관점 해결중심 관점 개입하려 노력하며, 행동 수정(아동과의 규칙 설정-상, 벌) 활용

(2) 공개 토의 및 슈퍼비전

- 초기 의뢰처의 기대는 무엇인가? 담임교사가 교육복지센터에 했던 기대한 것은? 센터에서 복지관에 기대한 것은? 개입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주 사례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정기적인 모니터링, 개입기관의 명확한 역할 설정 등) 수행 필요함.
- C't의 사례관리를 통한 기대, 의뢰 목표 뿐 아니라 포괄적인 재사정을 통해 '구체적, 실현가능한 목표' 재설정 필요함.
-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는 '행동 수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행동 수정은 섬세하게 설계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유의!
- 아동의 학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규칙에 대한 보상으로 '모와의 만남 횟수 증가, 핸드폰 사용 등'을 설정한 상황임. 보상이 조건부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과 재설정 필요함.
- 'ADHD'라는 진단명에 함몰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함.

2) 사례2. 평화종합사회복지관

(1) 사례 개요

- C't: 56세/남/무직/알콜성 치매, 자녀 방임
- 가족: 홀몸/ 지적장애 딸2명은 최근 생활시설 입소
- 기타: 현 사례관리자가 사례 선정부터 수년간 담당해 옴.

(2) 공개 토의 및 슈퍼비전

- 중장년 홀몸 남성 사례에 대한 개입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임대아파트 유입 비율 증가하는 추세임. 복지기관 담당자만으로 지원 가능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의 수, 주민의 역할 강화 필요함. 'C't를 좋아하거나 도울 수 있는 주민은 없을까?'

상대적으로 복지혜택 접근성이 이들을 위한 주민모임, 주민 연대에 대한 지역기관의 고민과 지원이 필요함.

- 사례관리자와 C't가 매일 유선 혹은 대면하며 사례 개입하고 있는 상황임. 사례관리자의 소진 정도는?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자와 주민이 빨리 헤어지면 좋은 것임. 주민이 스스로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것이 목표여야 함. 개입 시부터 사례관리 종결을 예측하고 어떻게 역할을 줄여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만성 혹은 복합적인 질병이 있는 C't에게 예후에 대한 자가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본 적 있는지?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사례관리 평가>

① 정보수집의 충분성

-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하여 정보 수집 했는가?
- 사례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어떠한 개입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였는가?
- 정보가 불충분하다면 어떤 영역의 정보가 필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더 확보할 계획인가?
-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에 장애물이 있는가?
-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에 장애물이 있다면 극복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② 정보 수집의 적절성

- C't 진술이나 관찰 내용, 다른 자료원의 정보 등에서 이상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있는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
-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계획은?

③ 사정평가 통합성

- C't 삶의 여정을 무엇으로 묘사해 볼 수 있는가?
- C't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는가?
- C't 내면의 힘과 자원은 무엇인가? 외부 자원은?
- C't 삶의 주요 전략은 무엇인가?
- C't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부분에서 성공하였고, 어떠한 부분에서 실패하였는가?
- C't 삶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④ 개입 효과성

- C't와 함께 하며 내가 직면하게 된 구체적인 장애물이나 어려움은 무엇인가?
- C't와 함께 하며 내가 직면하게 된 장애물과 어려움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C't 차원인가? 사례관리자 차원인가? 조직 차원인가? 지역사회 차원인가?

- 장애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시도를 했는가? 시도에 따른 결과는?

- 장애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시도를 하고 싶은가 혹은 계획은?

⑤ 사례관리자 자아인식

- C't와 상담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특별한 감정이 있는가?
- 특별한 감정이 있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특별한 감정은 C't와 함께 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 만약 특별한 감정이 C't와 함께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고 싶은가?
- C't의 사례를 통해 내가 배운 점은 무엇인가?

2. 참여 소감

공개 컨퍼런스의 장점은 발표 사례에 애정과 의지를 가진 사례관리자가 사례 개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동료들의 질문과 슈퍼비전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컨퍼런스도 1년여 혹은 수년간 C't와 가족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례관리자, 많은 것이 궁금하고 유사한 사례와 만나고 있는 여러 복지기관의 사례관리자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며 더욱 잘 돕기 위한 고민을 함께했다.

또한, 매몰되거나 간과하기 쉬운 점을 경계할 수 있도록 돕는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관리자로서의 태도를 반성하고 개선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C't가 원하는 것을 질문하고 귀 기울이는 사례관리자, 사례관리 이후에도 C't가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례관리자가 되고자 한다.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주 최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 간		2019.09.17.(화)
장 소		남동구 평생학습관 3층 교육실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기능향상지원팀
	명 단	정승영, 변새봄, 김석범
	인 원	3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09.17.(화)
	시 간	16시 00분~18시 00분/ 총 2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정신과적 위기상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정신질환(정신장애)의 이해

1) 정신질환의 개념

- 개인의 의지, 감정조절, 행동에서 나타나는 임상학적 의미가 있는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
- 생물학적, 정신적 또는 발달과정에서의 기능장애를 반영
- 사회적, 직업적 또는 중요한 활동에서의 의미 있는 고통과 기능장애
- 정신장애가 아닌 경우
 - 죽음, 혼란 스트레스 요인, 상실 등으로 인해 예측 가능한 반응
 -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반응
 - 사회적 갈등이 개인의 기능장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2) 정신장애의 원인

- 생물학적 원인
 - 유전, 나이, 성별, 기질, 인종
- 정신(심리)적 원인
 - 소아기 경험 : 애착, 이별, 외로움, 학대, 방임 등
 - 정신역동적 이론 : 무의식적 방어기제, 의식적 대응전략 등
- 사회문화적 요인
 - 스트레스, 방어기제, 항상성, 조정극복 등 요소에 적응능력

2. 정신병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하기

1) 의식의 장애

- 주의의 장애
- 고양된 의식상태
- 의식의 혼탁

2) 행동의 장애

- 표정과 태도, 행동증가, 감소, 반복 행동, 자동증, 거절증, 강박행동, 공격성, 자살, 실행증

3) 지각의 장애

- 착각, 환각, 환청, 환시, 환미 등

4) 사고의 장애

- 망상, 강박사고, 공포증

5) 언어의 장애

- 언어압박

6) 감정의 장애

7) 지남력의 장애

- 8) 기억력 장애
- 9) 지능 장애
- 10) 병식과 판단의 장애

3. 정신질환자 발병 및 재발 과정의 특징

- 1) 태도변화
 - 약속 불이행, 불만, 불평, 행동감소, 흡연 및 음주 등
- 2) 조기경고 증상들
 - 수면 및 식사 변화, 증상재발, 약물복용 중단, 습관의 변화
- 3) 위기
 - 위험행동, 흥분, 편집증적인 표현
- 4) 응급
 - 욕설 및 고함, 폭력적인 행동, 자해 및 자살 시도
- 5) 종결

4. 자살 고위험군

- 1) 위험요인(위험성)
 - 치아상태(치아마모 여부 : 가스중독)
 - 손목흉터(자해 및 자살시도 여부)
 - 손(손가락 힘의 상태 : 식이장애)

5. 위기개입과 위기관리의 적용

- 1) 위기관리의 기본원칙
 - 24시간 서비스제공, 대상자 대명평가 원칙,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자발적 치료우선의 원칙, 국가 안정망과의 협조,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 판단 필요
- 2) 위기관리에 있어서의 인권과 권익옹호
 - 자발성의 원칙, 고지의 의무, 비밀보장

6. 효과적으로 면담하기

- 1)내담자의 기분에 공감적인 반응
- 2)차분하고 신중하며 공감적인 태도
- 3)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고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 줌
- 4)작은 변화에의 칭찬적인 태도
- 5)지지적, 지속적, 일관적이며 개별적인 개입 중요
 - 조현병
 - 환각, 망상, 사고과정의 장애, 언어빈곤, 주의력 손상 등의 증상
 - 조울증
 - 심한 감정기복, 충동적이며 일탈적인 행동, 수면욕의 감소, 과대사고, 과장 등의 증상

7. 위기개입과 법적 개입

1) 상황별 입원 형태

- 보호자 유·무, 상태심각성, 협조자원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자의적 입원
- 의입원, 동의입원
- 비자의적 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8.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알기

-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건강한 애도반응
부정 -> 분노 -> 대화와 타협 -> 우울 -> 수용

9. 참여소감 및 적용점

- 정신질환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병하게 되는지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고 정신 질환자와 상담을 진행할 때는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음. 앞으로 정신질환자를 마주하는 상황이 온다면 좀 더 선입견 없이 바라보고,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음.
- 우리사회는 정신질환을 너무 가볍거나 혹은 너무 무거운 극단의 시선으로 바라 보고 있다고 생각됨.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및 가족과 보다 민감하게 대화하고, 징후를 포착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음. 특히 사례관리 대상자는 우울 감을 표현하거나 실제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들이 지치지 않고 스스로의 질병을 관리하고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속 하고자 함.
- 기능향상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도 정신장애를 가진 보호자가 내방할 경우도 있어 상담 시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 참석하였으며, 특강 형식의 짧은 강의였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주 최		남동구청
기 간		2019.11.27.(수)
장 소		남동구청 7층 소강당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변새봄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11.27.(수)
	시 간	15:30~18:00(총2.5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 2019년 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 Tip

- 2019년 총9회차, 14건에 대한 논의와 자문 진행: 동 6건, 구 1건, 민간 1건

1) 사례 대상자의 ISSUE가 너무 많을 때

: 문제가 많은 대상자의 경우, 사례관리의 목표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음
사례관리사와 대상자간의 합의된 목표를 확인하기

2) 사례관리 진행 중 사례관리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 사례관리사가 대신 하려하지 말고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도울 것

3) 한부모세대의 양육자와 자녀 간 갈등이 있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할 때

: 양육자와 자녀, 모두에게 물어보기. 주변 자원 확인하고, 협력하기

4) 자녀에 대한 방임 및 안전 우려로 의뢰가 들어왔으나 양육자가 문제 인식이 없을 때

: 부모 의지가 없는 사례는 자녀 문제에 개입 어려움. 탐색과 협력이 필요

5) 의존도가 높은 청장년 1인 세대의 욕구사항이 지속될 때

: 대상자의 '계속적 요구'의 이면에 내재된 의미를 생각해보기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계속되는 요구에 적절히 거절하기

6) 쓰레기집이 반복되는 사례

: 일상생활습관은 변화하기 어려움(저장강박증 등)을 인식하고 진행

7) 대상자의 연락 두절(고의적 회피) 등으로 사례진행이 어려워질 때

: 연락의 근거 남기기. 충분한 시도 후 연락두절로 종결하더라도 모니터링 하기

8) 부모 성인자녀 세대의 우울증 관련

: 초기 상담이 중요, 대상자의 행동에 대한 사정이 더 필요함

가정 내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 것

9) 알콜릭으로 치료 중인 1인 세대

: 주사례관리 기관, 협력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분담 중요

사례관리사의 안전에 유의할 것

2. 치유와 소통의 컬러테라피

1) 시각적 감각과 컬러(Color)의 영향력

: 인간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을 통해 사물을 인지함. 그 중 시각적 감각이 70%로 가장 영향력이 큼. 시각적 환경 중에서도 컬러(color)가 차지하는 것은 30% 정도임.

2) 컬러테라피란?

: 컬러테라피(Color Therapy)는 '컬러(color)'의 '색'과 '테라피(therapy)'의 '치료'를 뜻하는 합성어임.

: '색채치료'로서 컬러(color)를 이용하여 인간의 신진대사 작용에 영향을 주며, 그것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임. 또한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사용하면, 자극과 생기, 완화와 진정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심리적 역할을 하는 관리법임.

(1) 빨간색의 효능

: 정신적으로는 에너지 생성, 기운 상승, 신체적으로는 성적 호르몬 분비와 고혈압, 혈전, 동맥경화 등의 혈액순환 문제에 도움이 됨.

(2) 주황색의 효능

: 정신적으로는 슬픔, 상실감 치유, 신체적으로는 소화(消化)나 복부 및 신장, 장(腸)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3) 초록색의 효능

: 정신적으로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능력, 신체 균형 회복, 심신의 평안, 신체적으로는 흉선, 심장, 어깨와 가슴, 폐, 두통 완화와 관련이 있음.

(4) 파란색의 효능

: 정신적으로는 평화와 안정감, 긴장완화, 신경계 안정, 신체적으로는 요실금(失禁), 염증 완화, 불면증, 갱년기 불안증, 두통에 도움이 됨.

(5) 보라색의 효능

: 정신적으로는 평화와 조용함, 온화함, 신체적으로는 정수리, 뇌, 두피, 송과선을 활발하게 하고 머리와 관련된 모든 질병에 효과적임.

(6) 남색의 효능

: 정신적으로는 영적 치유의 색상으로 안전한 마취제이며, 신체적으로는 박테리아, 공기, 물, 음식물에 의해 발생한 오염물질 정화의 기능이 있음.

3) 정신적 안정을 위한 컬러테라피

: 스트레스가 높은 현대사회에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관리할 수 있는 테라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임. 국내에서 컬러테라피(colortherapy)를 적용한 미용분야의 다양한 연구들이 나와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치유할수 있는 보완 대체의학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길 기대함.

<교육 소감>

-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민·관의 담당자들이 모여 나의 색 찾기(타인이 느끼는 나의 색/내가 소개하는 나의 색), 색채 안의 언어와 메시지 찾기, 나의 타고난 본질의 색 찾기 등의 과정에 참여함. 타인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경청하는 업무인 만큼 공통의 스트레스를 토로하고 공감하는 것 만으로도 지지가 되었으며, 색상을 통해 나를 표현하며 민·관 담당자를 상호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음.

사회복지사를 위한 금융역량강화 교육



주 최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기 간		2019.12.04.(수)
장 소		서울시복지재단 5층 대회의실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변세봄
	인 원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9.12.04.(수)
	시 간	14:00~18:00(총4시간)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위한 금융역량강화 교육

1. 금융의 이해

1) 금융이란 무엇인가?

- 금융은 돈을 의미하고 ‘금’과 빌려주고 빌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용’이 결합된 단어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행위’를 의미
- 금융기관이란 금융을 촉진하고 대가를 받음
- 1금융: 은행
- 2금융: 카드, 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 3금융: 대부업, 사채업
- 금융상품: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저축상품, 대출상품,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등)
- 대출상품의 종류: 신용대출, 담보대출
- 가계부채: 가계대출+할부신용(할부 물품 구매), 정부부채 및 기업부채와 구분

2)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1)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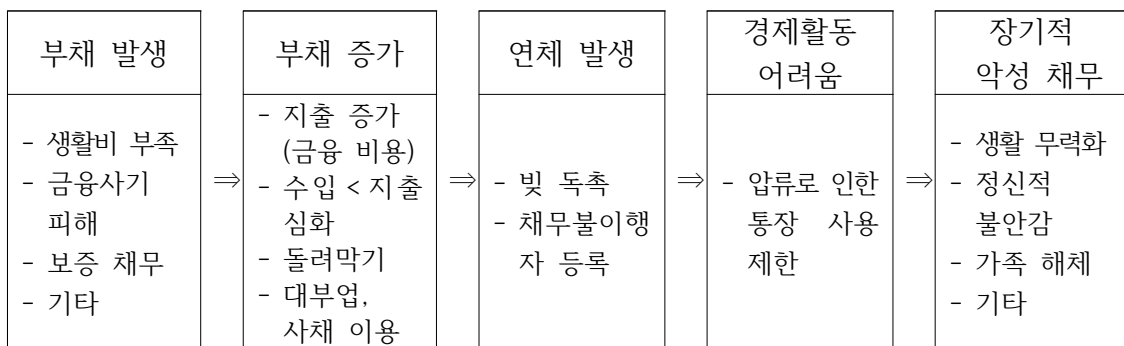
- 고위험 가구수 증가: 2015년 29.7만 → 2016년 31.2만 → 2017년 34.6만 가구
- *고위험 가구: 부채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상, 부채>자본
- 주로 소득이 낮은 1~3분위에 집중되어 있음

(2) 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 그동안 정부는 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법에 집중: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바뀔드림론, 미소금융
- 빚을 빚으로 갚는 정책은 개인이 소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로 납입하면서 소비, 생산, 고용을 둔화시킴 → 국가 경제를 저성장 상태에 머물게 함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짐

(3)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

- 부채 문제로 인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3) 빚에 대한 관점 변화

- 빚 권하는 사회, 약탈적 대출,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증가)
- 금융기관의 책임론: 금융기관의 부실한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부실대출 발생

2. 금융과 사회복지

- 금융과 사회복지의 특이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적자가구나 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빈곤층에게 있어 특히 중요함. 양자 모두 '돈의 흐름'을 촉진시켜 주기 때 문임.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노령·실직·질병 등에 의해 노동시장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없는 시장 수입이 없는 개 인을 지원해 왔다. 금융 역시 마찬가지다. 대출을 통해 생산 활동이 어렵다거나 욕구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개인들의 소비를 가능케 도와준다.
- 금융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양자의 상호 작용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빈약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이 가계부채 의 증가와 같은 금융의 문제를 유발·심화하고 있고, 동시에 금융의 문제가 사회 복지적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효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 이나 실천의 역할을 금융에 대한 이해 없이 제대로 모색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1) 금융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 금융대출은 개인이 자신의 미래 노동력을 시장에 담보하여 오늘의 삶을 영위케 함으로써 개인의 재상품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특히 대출상환능력이 취약한 빈곤 층과 저소득층에게 있어 금융대출은 약탈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산빈곤은 일반적으로 실업, 사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며 사는데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 다. 첫째 자산빈곤은 경제적 불안을 유발한다. 둘째, 저소득층의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차단한다. 셋째, 저소득층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끝으 로, 자산빈곤은 저소득층의 사회 및 정치적 참여를 어렵게 한다.
- 자산은 빈곤이 아닌 불평등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산불평등은 그 자체 도 문제지만, 금융 등에 의해 그 불평등의 정도가 확대재생산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은 얼마 되지 않는 기존 자산을 처분해 야 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요컨대, 노동시장에서 유발된 소득불평등이 금융 시장에 의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심화된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2) 사회복지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 오늘날 개인들은 노령·질병·실업·산재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할 비용이 부족할 경우 두 가지를 고려 또는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의 대출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개별 가계의 소비지출의 감소를 돕고, 주거 마련 등과 관련해 가계가 거액의 대출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연체발생의 가능성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의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전략일 수 있다.

3) 부채문제와 해결방안

-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채무조정제도이다.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사적 조정제도와 공적 조정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이며, 공적 조정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면책절차가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의 성격,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

채무조정제도 비교

2019.12.

구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운영	신용회복위원회(사적조정기관)			법원(공적조정기관)	
시행 일자	2019.9.23.	2009.4.13.	2002.10.1.	2004.9.23.	1962.1.20.
대상 채권	협약가입기관 보유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 범위	•담보 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담보 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제한 없음
대상 채무자	연체 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가능성이 있는 자	연체 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과중 채무자 중 일정 소득자	과중 채무자
보증인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수준	무담보채권 10년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15% 이내	무담보채권 10년 (담보 35년) 이자감면/원 이자율의 50% 적용	변제기간 8년, 이자감면 원금 전액 8년간 상환	•변제기간 3년 •변제 액 > 청산가치	파산 후 면책
법적 효력	사적 조정 변제 후 면책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법적파산면책
연체등 정보해제여부	미등록		개인워크아웃 인가 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면책결정 시 해제
공공정보내용			신용회복지원 중 (1101)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1301)	파산면책결정 (1201)
공공정보 삭제시기			채무변제완료시, 2년 이상 변제 시	채무변제완료시, 5년간 변제 시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사회복지 증진자를 위한 금융역량 강화교육

서울사회복지연구원

4) 취약계층 부채문제

- 부채와 우울증, 자살 시도 등과 같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학력, 고소득 경험자 일수록 영향이 더 커지는 경향

* 채무 독촉 대응 방안

① 불법 추심 체크사항

- 추심가능시간은 8시~21시, 과도한 방문 및 연락 금지(1일 2회 이내로 제한)
- 채무자 직장, 거주지 등 다수인이 모인 곳에서 채무사항 알리는 행위 금지
-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금전의 차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 집으로 방문할 경우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해 사전고지를 해야 되며 채무자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통화, 방문시 대화 내용 녹취 권장함

② 채무자대리인 제도

- 선임된 대리인(변호사 등)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 추심을 처리하는 제도. 독촉 등은 금지되나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법 조치는 가능함

③ 압류 대응방안

-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금지 권고 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금 185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 수급자라면 원천적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행복 지킴이통장) 개설 가능. 단 출금만 할 수 있을 뿐 입금할 수는 없음

④ 소멸 시효 확인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부라도 돈을 갚는 순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음

⑤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 주체의 구분

- 공적 제도: 법원/ 사적 제도: 금융회사 출자로 만들어진 '신용회복위원회'임.

⑥ 부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카드 및 고금리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경우
- 단기 혹은 장기 연체 중인 부채가 있음
- 현 소득 구조 상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움
-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보증을 한 경우

<교육 참여 소감>

- 재가서비스 및 사례관리 이용인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생계비에 의존하여 생활함.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소액을 빌리는 경우부터 보험 약관, 3금융권 혹은 사채 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보이스피싱 전화에 피해를 입어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음.
- 금융복지 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금융거래를 통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음. 또한, 취약계층 일수록 금융문제 해결에 비용,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응방안이 마련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중임.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고자 함.

